

사회심리학의 새로운 통로: 사회정보의 자동적 처리¹⁾

권준모 · *이훈구 · *이수정

경희대학교 ·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인간의 학습, 기억 및 판단과정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개인이 자신의 사고흐름과 의사결정 과정에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통제력을 지니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사회심리학자들 역시 인간에 대한 이런 합리주의적 관점을 받아들이며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순진한 과학자(Heider, 1958)로서 일련의 규칙에 따라 의식적으로 상황을 판단한다고 믿어 왔다. 그러나 최근 여러 경험적인 연구들은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대한 합리적인 모델로는 의식적 판단이나 심지어 자각도 없이 이루어지는 많은 사회적 심리현상이 설명이 되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현 문헌연구에서는 사회정보의 처리에서 개인의 의도, 자각, 통제, 및 많은 인지적 처리 용량의 개입없이 이루어지는 처리과정이 자동적 처리과정으로 설명되어졌다(Bargh, 1989). 또한, 사회정보 처리의 초기 단계는 이러한 자동적 처리가 지배하며, 자동적 단계에서 정보 처리상의 문제가 탐지되었을 경우, 다음 단계에서 의식적 처리 혹은 수정과정이 도입되는 2단계 모델을 통하여 사회적 각, 태도, 정서, 행동반응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을 조망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심리학의 연구들에서 자동적 처리와 의식적 처리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이러한 연구들의 진전이 사회심리학의 주요 분야에 대한 접근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검토하였다.

초보운전자는 옆에 탄 사람과 얘기를 나눌 여유도 없다. 그녀는 전방과 백미러를 번갈아 주시해야 하고, 타이밍을 맞춰 기어변속을 하기 위해 두 발을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며, 손으로는 핸들을 움직이고, 때에 따라 기어를 조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초보자가 운전을 한다는 것은 모든 주의 용량이 요구되는 작업이므로, 말을 걸면 오히려 불쾌한 반응을 보일 때가

많다. 그러나 반복되는 운전으로 이러한 행동들이 자동화된, 숙련된 운전자는 음악테이프를 갈아 끼우며, 담배 불을 붙이고, 전화기의 버튼을 누르면서 운전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복잡한 심리학 연구의 문제점을 토의하면서도 행위를 원활히 진행시킬 수 있다. 이는 운전에만 필요한 행동 절차가 자동화되어 더 이상 많은 인지적 용량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이다(Anderson, 1983). 이와 같은 원리가 사회적인 행위에서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처음 학교에 부임한 교사는 학생들의 다양한 행동들을 접하고,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그리고 몰입해서 그 원인들을 검토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적이며 자원소요적인 원인 탐색작업들이 오

1) 본 논문의 초고에 생산적인 조언을 주신 익명의 두 심사위원께 감사를 드린다. 이 중 한 분은 논문에 제시된 일상적인 예들과 실험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들의 많은 부분을 생략할 것을 추천하였으나, 저자들은 광범위한 사회심리학 독자들의 용이한 접근을 위하여 이해에 도움이 되는 일부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밝힌다.

랜 시간 반복적으로 그리고 일관성 있게 진행되면, 그 교사는 학생들의 행동 사례를 대하기만 하여도 아무런 노력 없이 자동적으로 추론이 진행되어, 강의를 하면서도 어렵지 않게 처리를 마칠 수 있지 않을까? (Logan, 1988)

또 다른 사회적 상황의 예를 들어보자. 탐스럽게 그려진 사과와 개수를 더하고 빼는 숫자공부책을 한 동안 마친 아동에게 어머니가 몇 가지 과일을 가져다 주었을 때 제일 먼저 사과에 손이 간다면, 이는 어떤 전통적인 사회심리학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지각장에 입력되는 다양한 정보들이 알지도 못하고 피할 수도 없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처리된다면 우리의 사회적 행동은 얼마나 의식적이며 통제적인가? 예컨대, 신입사원 면접심사를 위해 가는 길에 의식하지 않고 지나친 다양한 자극들이 도착하자마자 마주친 피면접자의 인상형성에 무슨 영향을 어떻게 미칠 수 있을까? 이러한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어떤 이론적 틀이 필요한가를 알아보는 것이 이 논문의 가장 큰 목적이다.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인간의 학습, 기억 및 판단 과정을 연구하는 인지심리학자들은 개인이 자신의 사고흐름과 의사결정 과정에 이성적이며,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통제력을 지니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Lachman, Lachman, & Butterfield, 1979). 폭넓은 인지심리학의 영향권에 있었던 사회심리학자들 역시 암묵적으로 사회적 행동을 중재하는 인지적 과정을 의식적이며, 의도적인 과정으로 가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이론과 연구를 제한시켜 왔다(Langer, 1978; Bargh, 1984). 사회심리학에서 가장 오랫동안 인지적 영역의 중주역할을 해왔던 귀인이론의 예를 보더라도, 의식과 의도를 지닌 순진한 과학자(Heider, 1958), 즉 이성적인 사회 지각자가 어떻게 의식적으로 잘 고려된 일련의 규칙에 따라 성향귀인이나 상황귀인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Jones and Davis, 1965; Kelley, 1967; Bem, 1972; Gilbert, 1989). 또한 Allport(1935)에 의해 사회심리학자들의 “가장 독특하고 불가결한 개념”(p.798)이라고 칭송 받았던 태도에 대한 이론과 연구들 역시 이성적이며, 자각할 수 있

고, 통제 가능한 처리범위 내에서 논의를 진행시켜 왔다. 구체적으로 사회과학 전반에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통용되고 있는 태도나 고정관념의 측정방법은 태도 대상이 주어졌을 때 의식적으로 고려하여 반응을 결정하는 자기-보고 자료에 기초하고 있다(Greenwald & Banaji, 1995). 즉 대부분의 사회심리학자들은 개인이 의식하고 의도한 인지과정에 의해 중재된 사회적 심리현상의 통로를 통해서 그들의 세계를 탐험하여 온 것이다.

그러나, 1975년 인지심리학자인 Posner와 Snyder (1975)는 본격적으로 인간의 인지적 처리과정이 의식적, 의도적, 통제적이라는 가정에 반론을 제기했다. 단어 판단과제와 범주화 과제 등에서 의미의 자동적인 활성화 확산(spreading activation)이 이루어지며, 이는 처리자에 의해 의식될 수도 없으며, 의도와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피할 수 없는 처리과정이라는 것이 발견되었다(예: Anderson & Bower, 1973; Collins & Quillian, 1969). 또한 의사결정이 비합리적이며, 면밀히 의식되거나 계산되지 않은 처리과정에 의존한다는 증거들이 속출하였다(예: Chapman & Chapman, 1967; Tversky & Kahneman, 1974). 사회심리학의 분야에서 Langer(1978)는 사회적 도식에 대한 자신의 연구를 인용하여,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사고과정이 사회적 행동의 기저를 이룬다는 기존의 가정을 단호하게 반박하였다. 또한 사회적 추론에 관하여도 그것이 항상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사고과정은 아니고, 오히려 많은 경우 의식 없는 자동과정일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사회지각의 연구에서도 참가자가 자각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과거의 경험이 어떻게 현재의 사회적 범주판단과제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었으며(Higgins, 1996 참조), 태도와 고정관념의 연구에서도 대상의 정서적 차원이 개인의 의지나 통제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Fazio, 1986; Greenwald & Banaji, 1995 참조). 또한 최근의 연구자들은 사회적 추론 과정에서 성향 귀인이 매우 효율적이며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자동처리과정임을 입증하였고(Newman & Uleman, 1990; Gilbert, 1989), 역치 이하로 제시된 자극에서

정서적 정보가 차후 정보처리과정에 자동적이며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도 속출하였다(Murphy & Zajonc, 1993; Niedenthal, 1990). 이와 같은 사회적 정보의 비의도적, 비자각적, 통제 불가능한 처리과정에 대한 사회심리학자들의 불붙은 관심은 1980년대와 90년대 사회인지적 연구의 중심을 이루게 되었으며, 사회심리학의 거의 모든 분야의 기존 연구들을 자동적 처리라는 새로운 '렌즈'를 통해서 재조명하도록 이끌었다(Bargh, 1996).

그렇다면 사회정보에 대한 자동적 처리의 범위는 어느 정도이며, 의식적인 처리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자동적 처리는 반복적이며, 일관적으로 제시되는 사건들의 연속을 통해 발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Shiffrin & Schneider, 1977). 즉 자동적 처리는 세상의 규칙성에 대한 반영이며, 이를 통해 사람들은 더욱 효과적으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의식적 처리는 노력이 필요한 비용이 많이 드는 처리이다. 인지적 구두쇠(cognitive miser, Taylor, 1981)의 관점에서 본다면, 기초적이며 일상적인 인간의 정보처리는 경제적인 자동처리에 의존하며, 자동적 처리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만 의식적 처리가 개입할 때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이는 대체적으로 정보처리의 초기단계에서는 자동적 처리가 지배적이며, 자동적 처리가 의식적 처리와 갈등상태에 놓이게 될 때 혹은 기존의 규칙성과 어긋나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만 의식적 처리가 등장하여 사람들의 사고과정을 감독하게 되는 2 단계 모델을 가정해 볼 수 있다(예: Devine, 1989; Fiske, 1989; Gilbert, 1989 등). 그러나 의식적 처리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두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이는 처리자가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과정과 다르게 생각하거나 행동하려는 동기나 의도가 필요하며, 노력과 비용이 드는 의식적 처리를 진행할 수 있는 주의용량이 필요하다(Martin, Seta, & Crelia, 1990; Ford & Kruglanski, 1994; Gilbert, Pelham, & Krull, 1988; Thompson, Roman, Moskowitz, Chaiken, & Bargh, 1994).

이러한 관점을 통해, 본 논문에서는 사회심리학의 주요 영역에서 밝혀진 자동적 처리에 관한 연구들을 소개하고, 사회정보의 자동적 처리가 어떻게 의식적

처리와 상호작용하는가에 대하여 논의하겠다.

자동적 처리과정의 기본 원리

심리학에서 자동처리는 다양한 특징들에 의해 정의되어 왔다(Johnson & Hasher, 1987; Logan, 1988; Bargh, 1996). 자동처리를 정의하는 4가지 중요한 특징은 **비의도성**(개인이 의지를 가지고 처리하지 않음), **비자각성**(개인이 처리과정을 의식하지 못함), **불통제성**(개인이 처리과정을 멈출 수 없음)과 **효율성**(다른 처리과정을 방해하지 않는 병렬적 처리가 가능함, 최소한의 인지적 용량으로 처리됨)으로 요약될 수 있다(Bargh, 1990). 반대로 의식적인 처리나 통제된 처리는 이러한 자동처리의 특성과 대조적인 처리과정으로 정의되었다. 즉 의식적이거나 통제된 처리는 의도적이며, 자각할 수 있고, 통제가 가능하며, 인지적 용량을 차지하는 처리과정이다. 그러나 인지심리학의 연구에서 이러한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자동처리과정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Kahneman & Treisman, 1984; Logan & Cowan, 1984). 특히 자극 구조가 더 복잡한 사회심리학 분야의 자동처리과정에 관한 연구에서 위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 연구의 사례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Bargh, 1989, 1994). 사회심리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자동처리라고 명명하였던 현상들은 위의 4가지 요소 중 한 두 가지만을 만족시키며, 다른 의식적 혹은 통제된 처리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동처리과정에서 의도, 자각, 통제, 효율이 동시에 실무율적으로 일어나기보다는, 독립적인 다양한 조합의 형태로 일어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Zbrodoff와 Logan(1986)은 자동처리 과정에서 이 4가지 조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는 아무런 이론적 근거가 없으며, 각각의 독립적인 요소들을 밝히는 것이 더 유용한 방향이라고 제안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Bargh(1989)는 사회적 자극에 대한 자동처리과정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로 전의식적인 자동처리 과정(preconscious automaticity)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지각자 스스로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여도 이미 만성적으로 접근 가능한 (chronically accessible) 경로가 있어서 굳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그런 개념들은 언제나 활성화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전의식적 자동처리 과정은 전주의적(preattentive)이라고도 할 수 있다. 특정한 사회적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그와 관련된 만성적으로 접근용이한 개념들이 인지적 노력을 기울여야만 처리가 되는 어떠한 과정들보다 먼저 활성화된다 (Bargh, 1984; Higgins & King, 1981). 자극이 이미 지니고 있는 어떠한 특성 때문에 자동적으로 주의를 끌게 되는 이러한 현상의 예로는 태도와 정서의 자동 활성화와 많은 종류의 집단 고정관념, 즉 피부색이나 성별에 따라 만성적으로 활성화되는 인지적인 틀이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후의식적인 자동화 과정(postconscious automaticity)은 최근 의식한 어떠한 사건에 의해 후속적인 처리 과정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가 해당된다(Bargh, 1989). 문장완성과제를 통하여 “잔인한” 또는 “독립적인”이라는 사회적인 성격 개념이 미리 활성화된 경우, 후에 제시되는 자극 인물에 대한 판단이 그로 인해 채색되는 현상이 이에 해당된다 (Higgins & Bargh, 1987; Higgins, 1996 참조).

사회 심리학에서 연구되어지고 있는 이런 두 가지 자동처리 과정이 만성적으로 접근용이한 개념적 틀을 지니고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 구분 가능하다면, 세 번째 형태의 자동적인 처리 과정은 어떤 특정한 목표를 위해 수행하는 의도적인 행위의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앞의 두 가지 자동 처리과정과 구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Bargh(1989)는 이런 종류의 자동 처리 과정을 목표 의존적인 자동화 과정(goal-dependent automaticity)으로 분류하였다. 목표 의존적인 자동화 과정은 일단 처리의 목표가 주어지면, 그 다음의 자동적인 처리가 부수적으로 일어남을 말한다. Gilbert, Pelham, 및 Krull(1988)은 사람들이 행동의 원인을 추론하는 과정에서 인지적 용량이 부족해도 성향 귀인이 일어남을 보여주었고, Bargh와 Tota(1988)의 연구에서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과제에서 우울증과 비우울증 집단이 서로 다른

내용의 특질이 자동적으로 활성화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렇게 이전의 자극에 대한 의식적인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처리 과정이 주된 처리 맥락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과정이냐에 따른 구분은 필요에 의한 인위적인 분류라고도 볼 수 있다. 다만 이들 과정의 핵심이 되는 개념은 일단 특정한 개념이 획득되어 매우 자동화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러한 개념과 관련이 있는 미세한 단서만 제시받아도 그와 연관된 기억 체계가 접근용이해져서 후속적인 판단이나 처리과정에 의식적인 노력을 소모시키지 않고도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원리는 연합주의적 관점에서도 잘 설명될 수 있다. 네트워크 모델이라고 일컬어지는 연합주의적 관점은 특히 인간의 기억 과정의 근간을 이루는 의미론적인 연합망이 일련의 고리(node)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한다(Collins & Loftus, 1975; Anderson & Bower, 1973). 즉 특정 개념이나 범주들 그리고 특정 사건에 대한 기억 흔적들은 고리들의 연결로 표상된다. 이러한 연결 고리들은 명제의 형태로 변형되어 저장되는데 이때 서로 의미론적으로 가까운 연결 고리들끼리는 더 강한 통로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 한 개의 연결 고리가 활성화되면 그 주변의 연결 고리들에게도 이 활성화 효과가 퍼져 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연합주의적 관점은 앞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 여러가지 맥락효과들을 매우 잘 설명해 준다. 즉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이나 생각이 그 이후의 여러 가지 인지적인 과정을 이전의 맥락과 일관성을 이루는 방향으로 채색해 간다는 것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점화효과를 보여주는 연구들은 일단 표적 단어의 제시 전에 의미론적으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점화 단어가 주어지게 되면, 의미론적으로 관련이 없는 단어를 제시받았을 때보다 피험자들이 표적 단어에 훨씬 빨리 반응한다는 것이다(Neely, 1977; Meyer & Schvaneveldt, 1971; Neely, 1991의 개관 참조). 또한 의미론적인 점화 효과는 점화 자극이 의식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짧게 제시될 경우에도 후속적인 판단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arcel(1983a, 1983b)은 피험자들에게 재인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짧게 접화 자극을 준 경우에도, 예를 들자면 “nurse”라는 단어에 의해 접화된 조건의 피험자들이 “muffler”라는 단어보다 “doctor”라는 단어에 유의미하게 더 빨리 반응함을 발견했다. 이는 “nurse”라는 접화 자극이 그와 의미론적으로 연관된 연결망들을 활성화시켜서 그 단어와 밀접하게 관련된 “doctor”라는 단어에 더 빨리 반응하도록 하게 해 준 결과이다. 이는 의미론적인 자극에 대한 처리 과정이 지각적 특성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과정 못지 않게 매우 자동적임을 보여준다. 의미론적인 연결고리들의 과잉 학습, 즉 연합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동처리과정은 Higgins, King, 및 Jones(1977)의 범주 접근용이성(category accessibility)이라는 개념으로도 확대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원래 Bruner(1957a)에 의해 제안되었던 이 개념은 접화자극의 효과가 특정 범주에 대한 접근용이성 때문에 일어나게 된다고 설명한다. 즉, 접화자극은 특정한 범주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그 범주 전체를 활성화하게 되며 동일한 접화자극이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경우 그와 관련된 범주는 다른 표상구조들에 비해 훨씬 지배적으로 후속적인 처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최근 태도나 고정관념의 처리과정에 대한 여러 연구들(Blair & Banaji, 1996; Fazio, Jackson, Duntom & Williams, 1995)은 범주 접근용이성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그 형성 및 변화과정을 설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면 먼저 이러한 자동적 범주 접근용이성이 어떻게 사회지각에서 연구되는지 살펴보고, 차례로 사회심리학의 주요 분야인 태도, 고정관념, 정서, 및 사회적 행동에서의 자동처리 과정에 관한 연구들을 개관하겠다.

사회지각에서의 자동 활성화

개인이 사회적 지각을 하는 근본적인 과정은 입력 자료를 자신의 기억저장고에 있는 범주와 연결시키는 작업이다(Bartlett, 1932; Bruner, 1957a, 1957b). 기억 속에 있는 어느 범주가 입력자료의 판단에 사용되는가는 입력자료의 속성과 범주가 얼마나 기억 속에서 접근용이한가(accessibility)에 따라 결정된다(Higgins,

1989, 1996). 입력자료가 분명하게 특정 범주와 많은 유사성을 지녔을 경우에는 기억 속에서 어떤 범주가 접근용이한가에 따른 영향을 덜 받겠지만, 입력자료가 모호하고(vague), 애매할(ambiguous) 경우에는 기억 속에서 어떤 범주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가의 정도가 지각과 판단과정을 결정한다(Higgins, 1996). 많은 사회적 입력자료들은 물리적 자극들과는 본질적으로 달리 어느 정도의 모호성과 애매성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하면 사회지각에서 자동적 처리가 미치는 영향의 범위는 적지 않을 것이다. 예컨대, 어느 사람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이를 자주 표현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지각하겠는가 아니면 ‘자만하는’ 사람으로 지각하겠는가? 또한 논술식 시험을 채점할 때 두 학생의 답안지가 거의 유사하다고 가정해 보자. 그것을 채점하는 교수는 이 학생들을 공부할 때 ‘협력하는’ 학생들로 평가하겠는가 아니면 ‘부정직한’ 학생들로 평가하겠는가?

지각자가 접화사건의 관련성을 자각하지 못한 경우, 두 가지 대립적인 범주 중에 어느 범주가 지각자에 의해 사용되는가는 지각자의 의도나 통제의 영향 없이 각 범주의 활성화(activation) 정도에 따라 자동적으로 처리된다(Higgins and King, 1981). 즉 어느 범주가 개인의 머릿속에서 더 접근용이한가에 따라 특정 범주가 정보처리에서 선택되어진다. Higgins 등(1985)은 범주의 접근용이성을 일시적 접근용이성(temporary accessibility)과 만성적 접근용이성(chronical accessibility)으로 구분하였다. 범주의 일시적 접근용이성은 사회적 판단과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특정 범주를 활성화하여 그 범주의 접근용이성이 순간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사전에 판단과제와 관련이 있을만한 사건이 전무하였다면 지각자는 입력정보를 자신이 평소에 만성적으로 접근용이한 범주를 이용하여 지각하였을 것이다. 위에서 예를 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이를 잘 표현하는 사람을 지각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 사람을 지각하기 직전에 인류에 위대한 업적을 이룩한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의 능력에 자신감이 있었는지에 대한

글을 읽었다면, 지각자는 '자신감 있는' 사람의 긍정적인 특징으로 범주화시켰을 가능성이 높다('자신감 있는'의 일시적 접근용이성 효과). 그러나 만약, 사전에 다른 관련된 사건이 없었고, 지각자가 평소엔 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에 대한 높은 거부감과 이에 대한 경계가 활성화되어 있었다면('자만하는'이 만성적인 접근용이성을 지님), 이러한 사람을 '자만하는'의 범주로 지각하였을 것이다. Higgins와 Bargh(1985)는 이 현상을 신경생리학의 뉴론 활성화이론에 기초한 시냅스모형(Synapse Model)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접화된 뉴론의 활동은 순간적으로 특정한 지식구조를 활성화시켜 그것의 이용가능성을 증가시키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뉴론의 활성화는 쇠퇴한다. 그러나, 빈번한 특정 지식구조의 활성화는 이 구조를 만성적으로 접근용이하게 한다. 위의 예에서 '자만하는'에 대한 만성적 접근용이성이 높은 사람의 경우, 일시적으로 '자신감 있는'의 범주에 대한 일시적 접근용이성을 증가시킬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시적 접근용이성의 효과는 소진되고, 만성적 접근용이성이 높은 '자만하는'이라는 범주를 통해 애매한 입력자료를 지각한다(Bargh et al., 1986).

가장 고전적인 실험 패러다임인 Higgins, Rholes, 및 Jones(1977)의 연구에서 학생들을 두 가지의 정보 처리에 대한 실험에 참가시켰다. 첫 번째 실험은 지각과정에 관한 실험이라고 일러주고, 슬라이드의 색깔을 보고하는 과제 중에 단어들을 암송하도록 유도하였다. 한 집단의 학생들에게는 '탐험적인(adventurous)'에 관련된 단어들을 암기하도록 하고, 다른 집단의 학생들에게는 '부주의한(reckless)'에 관련된 단어들을 암기하도록 하였다. 이 암기과제는 학생들의 저장된 범주를 자동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실시되었다. 첫 번째 실험이 끝난 후 학생들은 이전의 과제와 전혀 관련 없는 실험이라고 지각된 독해에 관한 두 번째 실험에 참가하게 하였다. 실험자는 학생들에게 한 페이지 정도의 도널드라는 사람에 대한 기술문을 읽게 하였다. 도널드는 암벽등반, 급류타기, 스카이 다이빙 등 위험하지만 흥분도가 높은 여가활

동을 즐기는 사람으로 묘사된다. 학생들은 기술문을 읽은 후 독해점수에서 도널드에 대한 성격특질을 적게 하였다. 이때, 이전 실험에서 '탐험적인'에 관련된 긍정적인 특징단어를 암기하도록 지시 받은 학생들은 도널드를 더욱 '탐험적인', '도전적인' 등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부주의한'에 관련된 부정적인 특징단어를 암기하도록 지시 받은 집단은 도널드를 더욱 '부주의한' '무책임한' 등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어떠한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특징형용사를 활성화한다고 나타나지는 않았다. Higgins 등(1977)은 동일한 실험과정을 이용하여 예컨대 '순종적인'(긍정적) 혹은 '경멸스러운'(부정적) 등의 단어를 접화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단어들의 활성화는 참가자들이 도널드를 해석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 사람들은 주어진 정보를 판단함에 있어서 모든 접근용이한 범주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다만 지식 표상의 자동적 활성화의 중요한 원칙은 접근용이해진 범주가 주어진 정보에 적용가능성(applicability)이 있을 경우에만 사용된다는 점이다(Higgins & King, 1981; Higgins, 1989, 1996).

Higgins 등(1977)의 연구 이후 특정 범주에 대한 사전노출이 차후 입력자료의 처리에 자동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Higgins, 1989, 1996; Srull & Wyer, 1979; Bargh, Bond, Lombardi, & Tota, 1986; Herr, Sherman, & Fazio, 1983; Martin, 1986; Rholes & Pryor, 1982; Sedikides, 1990; Skowronski, Carlston, & Isham, 1993; Sherman, Mackie, & Driscoll, 1990; Trzebinski & Richards, 1986; Williams, 1993; Wyer & Hartwick, 1980). 이러한 실험들의 공통적인 패러다임은 주로 특징과 관련된 범주를 사용하였으며, 두 가지의 대비적인 범주가 모두 적용가능한 입력자료(주로 행동기술문)를 사용하였다. 두 가지 범주 중 한 가지가 더 접근용이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입력자료 판단 이전에 다른 범주들이 활성화되는 조작을 가하였으며, 이 조작은 피험자가 자극의 제시를 자각하지 못하는 수준에서도 차후 정보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Bargh와 Pietromonaco(1982)의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공격적인’에 관련된 단어들을 역치 이하로(subliminal) 제시하였다. 이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자신이 본 단어가 무엇인지 의식적으로 자각하지 못할 경우에도 ‘공격적인’의 범주가 접근용이해져, 중립적인 단어를 제시받은 집단에 비해 애매한 입력자료를 더 ‘공격적인’ 범주로 분류하는 것을 발견했다(Niedenthal, 1990도 참조). 이는 우리의 사회적 지각이 얼마나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제시한다.

이와 같은 연구들에서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피험자들이 점화를 일으키는 사건과 판단과제 간의 관련성을 의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Higgins 등(1977)은 그들의 고전적인 실험에서 학생들이 그 관련성을 의심한 집단을 결과처리에서 제외시켰다. 즉 특정한 범주가 활성화되고, 그것이 입력자료를 범주화합에는 특정한 범주가 활성화되었다는 사건 자체가 자각되지 않고, 자동적인 처리과정(automatic process)에 의존하여야 한다(Bargh, 1989). 그러나 만약 학생들에게 두 가지 실험절차의 관련성을 자각하도록 실험설계를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Martin(1986)은 이러한 실험설계를 시도하였으며, 중요한 결과는 학생들이 오히려 점화시킨 범주와 대비되는 범주를 더 이용하여 차후의 입력자료를 처리하는 대비효과(contrast effect - 점화된 범주와 반대의 방향으로 입력자료를 판단함)를 보고하였다(권준모, 1997 참조). 이전에 일련의 실험에서 Higgins 등이 발견했던 결과들은 모두 동화효과(assimilation effect - 점화된 범주가 접근용이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와 유사한 범주로 입력자료를 판단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일련의 연구자들은 사회지각에서 특정 범주가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면 동화효과가 일어나나, 점화사건이 의식되면 점화의 영향을 배제하려는 시도에서 반대로 대비효과가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Petty와 Wegener(1993)는 사전에 활성화된 범주가 자동적으로 동화효과를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그들은 환상적인 여행지(예를 들어 하와이나 플로리다)를 점화시킨 후 보

통의 여행지를 평가하게 하였을 때, 학생들은 자동적으로 대비효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점화사건을 의식하게 만들어 준 조건에서는 수정과정이 일어나서 대비효과가 사라진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들은 유연 수정 모델(flexible correction model)을 제안하면서, 의식되지 않은 점화는 동화효과를 일으키고, 의식된 점화는 대비효과를 일으킨다는 단순한 원칙이 아니라, 사람들이 점화사건을 의식하면 자신의 지각이나 판단에 영향을 주는 방향을 판단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지각의 수정과정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처음에 예를 들었던 면접자의 경우를 다시 고려해 본다면, 면접장에 들어서기 전에 노출된 다양한 자극의 효과에 대하여 의식한 경우와 의식하지 못한 경우에 그 자극들이 피면접자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상반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사회지각에서 사전 점화로 인한 동화와 대비효과는 자동적 처리와 의식적 처리의 상호작용 방식을 보여준다. 사전 점화 사건과 판단과제와의 관련성이 자각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적 처리에 의한 사회지각이 일어나지만, 일단 관련성이 자각되는 경우 사전 점화 사건의 영향을 배제하려는 방향으로 의식적 처리가 진행된다. 그러나 의식적 처리가 자동적 처리의 영향력을 압도하기 위하여는 동기와 인지적 용량이 필요하다. Martin, Seta, 및 Crelia(1990)는 점화 사건을 의식할 수 있는 조건에서 참가자들에게 그들의 응답이 다른 참가자들의 응답과 평균지어질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참가자들의 정확성 동기를 저하시켰다. 이 경우에는 의식적 처리과정이 개입되지 못하여 의식적 점화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점화 사건의 자동적 처리가 일어남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인지적 욕구(need for cognition)가 낮은 집단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견되었다. 또한 Ford와 Kruglanski(1994)는 인식론적 동기(epistemic motivation)의 개인차에 따라 자동 활성화된 범주 사용의 차이가 난다는 결과를 발견했다. 사회지각에서 의식적 처리가 자동적 처리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동기적인 요소외에도 인지적 처리용량이 필요하다. Martin 등(1990)은 특질범주를 자동적으로 활성화시킨 후 인상판단 과제를 할 때 다른 인

지적 용량이 소요되는 과제를 동시에 병행시켰을 경우, 점화 사건이 의식된 조건에서 의식적 처리에 의한 수정과정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귀인의 자동적 과정

연극에서 노인 분장을 하고 노인역을 맡은 무대 위의 배우를 볼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를 노인이라고 받아들인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야 의식적으로 그가 실제 노인이 아니라 젊은 배우라고 자신의 지각을 수정한다. (Helmholtz, 1910 /25, p.28, 부분적 의역)

전통적으로 귀인이론은 개인들이 행동의 원인을 판단할 때 개인의 지속적인 내적 성향과 쉽게 변하는 외적인 상황의 힘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귀인의 방향은 크게 '성향'과 '상황'으로 양분될 수 있으며, 상황적 힘이 약한 행동은 개인의 성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상황적 힘이 강한 행동은 개인의 성향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Jones & Davis, 1965; Kelley, 1967; Bem, 1972; Gilbert, 1990). 더욱 중요하게도 Heider (1958)와 Kelley(1967)에 의해 대표되는 전통적인 귀인이론가들은 이러한 과정들이 마치 합리적인 과학자처럼, 의식적이며 잘 계산된 처리에 의하여 진행된다고 가정하였다. 예컨대 Kelley의 공변원리(covariation principle)는 인간을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사회정보의 처리자로 전제하고 있다. 그는 사람들이 귀인에 이르기 위해서 세 가지의 특수한 형태의 정보 차원을 사용한다고 제안하였다. 사람들은 인간의 행동을 분석할 때 과학자와 같이 특이성 정보, 일치성 정보, 일관성 정보를 차례로 점검하여 행동의 원인을 탐색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그러나 의식적이며, 통제된 처리에 근거한 귀인이론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Langer(1978)에 의해 공격을 받는다. 또한 Schank와 Abelson(1977)은 사람들이 Kelley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한 처리보다는 자신이 지닌 도식을 즉각적으로 활용하여 판단하는, 용량이

적게 드는 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즉 귀인이론의 분야에도 개인들이 인지적 경제성을 추구하는 효율적인 처리(자동처리의 한가지 요소)를 지향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특히 전통적인 귀인이론가들이 가정한 바와 같이 행동에 대한 성향과 상황귀인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지각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성향추론(spontaneous trait inference)이 일어난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Winter와 Uleman(1984)은 행동에 대한 특질 추론이 얼마나 자동적으로 일어나는지를 기억과제를 통해서 보여주었다. 그들은 참가자에게 "그 비서가 추리소설의 반쯤을 읽고서 범인을 알아냈다."와 같은 문장을 읽게 한 후, 단서를 주고 문장을 회상하는 과제를 주었을 때 특질을 나타내는 "똑똑한"이라는 단서가 문장의 의미와 연관이 있는 "탐정"과 같은 단서에 비하여 회상율을 높인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다른 연구에서는 학생들에게 일련의 숫자를 암기하는 과제를 제시하고 방해자극으로 문장을 제시한 후, 예기치 않게 문장을 회상하라고 했을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가 발견되었다(Uleman, Newman, & Winter, 1992). 이는 참가자가 행동기술문을 보면서 의도하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못한 특질이 자동적으로 추론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Quattrone(1982)은 타인의 행동에 대해 지각자가 객관적으로 상황 귀인을 할 것인가, 혹은 성향 귀인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는 오히려 지각자가 타인의 행동에 대하여 먼저 성향 귀인을 하고 그 다음에 상황적 정보를 수용하여 추론을 수정한다는 증거를 보여 주었다. 예컨대, 통명스러운 창구 직원을 대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원래 불친절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가 일하는 상황이 그를 통명스럽게 만들었는가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는다. 우리는 먼저 불친절한 사람이라는 즉각적인 성향 추론을 내린 후에, 하루에도 수십 차례 반복된 질문을 받으면, 누구라도 그럴 수 있으며, 그러므로 원래 불친절한 사람은 아닐 것이라고 행위자가 처해 있는 상황적인 정보를 참조하여 추론을 의식적으로 수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같은 맥락에서 Gilbert 등(1988)은 "귀

인은 성향적 추론과 이에 대한 상황적 수정에 의한 결과물이다.”라고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Gilbert(1989)는 개인들의 귀인과정이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먼저, 행위자의 성향을 추론하며(행동이 어떤 성격특질을 말해 주는가?), 둘째로 추론을 수정하는(어떤 상황적 요인이 행동에 영향을 미쳤는가?) 단계로 구체화하였다(Gilbert, Pelham, & Krull, 1988; Gilbert & Malbone, 1995). 그는 두 단계의 사회적 추론 과정이 질적으로 다른 처리과정으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하였다. 행동을 보고 즉각적으로 성향을 추론하는 과정은 인지적 용량이 들지 않는 자동적인 처리과정인 반면, 상황적 정보를 근거로 추론을 수정하는 과정은 많은 자원이 요구되는 의도적이며 의식적인 처리과정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Gilbert, Pelham, 및 Krull(1988)은 피험자들에게 표적인물인 젊은 여자가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비디오를 보여주었다. 비디오에 나온 여자는 손톱을 물어뜯거나, 손가락을 두드리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 모든 조건에서 초조하고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참가자들은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대화의 내용은 듣지 못했으나, 어떤 주제로 대화를 하는지는 알 수 있었다. 실험자는 한 집단의 참가자들에게는 그 여자가 일상적인 주제(예를 들어, 세계여행)에 대하여 대화하고 있다고 알려 주었고, 다른 집단의 참가자들에게는 예민한 주제(예를 들어, 성적 환상)에 대하여 대화하고 있다고 알려 주었다. 예민한 주제에 대하여 대화하고 있다는 상황적인 정보는 표적인물의 불안한 행동에 대한 성향 귀인을 수정해 줄 것이다. 즉 모든 참가자들은 여자의 불안한 행동에 대한 성향 귀인을 하지만, 예민한 주제에 대하여 대화하고 있다는 정보가 주어진 집단은 수정과정을 통해서 성향 귀인이 감소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인지적 용량이 제한된다면, 자동적 처리과정인 성향 귀인은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의식적 처리과정인 수정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한 집단의 참가자들은 비디오를 시청하는 동안 단어들을 암송하는 과제를 추가로 수행하였다. 그 결과 통제집단(인지적 용량의 제한을 받지 않은 집단)에서는 예민한 주제에 대하여

대화하고 있다고 알려 주었을 때 성향 귀인이 낮게 나타났으나, 이에 반하여 인지적으로 용량이 제한된 집단은 대화의 주제에 따라서 성향 귀인의 정도가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인지적 분주함이 예민한 주제에 대하여 대화하고 있는 상황적 제약을 토대로 성향 귀인을 수정하는 의식적 작업을 방해하였음을 보여준다.

즉각적인 성향추론에 대한 연구와 귀인의 2단계 모형에 관한 연구들은 전통적인 귀인이론가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귀인과정이 심사숙고한 의식적인 처리가 아닐 수 있으며, 귀인과정 역시 자동적 처리의 범주에서 벗어나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실 일부 귀인이론가들은 이미 행동에 대한 입력자료가 표상되는 초기단계에서 귀인-관련 범주로 약호화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Reeder & Brewer, 1979; Trope, 1986). “친근한 행동”과 같이 지각된 행동의 명명화(identification) 단계에서 사람들은 성향에 관련된 표상을 형성하며, 이는 차후에 의식적인 귀인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결론적으로 귀인의 자동처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의식에 의한 추론 기제는 자동화된 처리들이 가져다 준 재료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셈이며, 자동화된 처리들이 어떻게 추론의 재료들을 만들어내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사회심리학의 귀인이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태도의 자동활성화

태도의 자동적 활성화의 가능성은 Fazio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Fazio, 1986). Fazio는 태도를 주어진 대상과 그에 대한 평가의 연합이라고 정의하였다(Fazio, 1986; Fazio, Sanbonmatsu, Powell, & Kardes, 1986; Fazio, 1990). 그는 태도의 대상이 우리의 지각장에 들어오는 순간, 그에 대한 평가가 기억에서 자동적으로 활성화되어 차후의 처리과정을 이끌어 간다고 주장한다(Fazio, 1986). 예컨대 우리가 ‘바퀴벌레’라는 대상을 대하면 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며, 이와 같은 처리과정은 개인이 통제할 수도 없고, 자각할 수도 없으며, 노력이

필요하지도 않다는 점에서 자동적인 처리과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의 자동활성화 정도는 의식적 차원에서 선호도를 측정하는 기존의 써스톤(Thurstone) 방식, 리커트(Likert) 방식, 어의미본 척도(Osgood et al., 1957)와 같은 태도평정 방법으로는 측정될 수 없다. 기존의 평정방법에서 같은 정도의 혐오도를 갖더라도 대상이 얼마나 강한 활성화를 유발시키는 가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상이 주어졌을 때 태도가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는 정도는 대상과 그에 대한 평가의 연합된 강도의 함수이다(Fazio, 1986, 1990). 즉 대상과 평가의 연합강도는 기억으로부터 태도의 접근용이성을 결정하고, 대상을 접했을 때 태도가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는 정도를 결정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태도의 연합강도는 태도평정치와는 독립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초코렛'이라는 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정도의 선호도를 나타내더라도 초코렛과 그 선호도에 대한 연합강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태도의 자동활성화를 결정하는 새로운 차원인 연합강도는 처음에는 태도 대상에 대한 선호도 평정의 반응 지연시간(latency)으로 측정되었다(Markus, 1977). 즉 대상-평가의 연합이 강할수록, 사람들은 태도에 대한 질문에 더 빨리 응답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예컨대 '낙태'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속도가 태도의 연합강도의 지표로 사용되었다(Fazio et al., 1982).

그러면 태도의 연합강도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Fazio는 태도의 연합강도는 태도가 표현되는 횟수와 태도형성의 유형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Powell과 Fazio(1984)는 참가자에게 다른 횟수로 자신의 태도를 반복적으로 표현하게 조작하였다(1회, 3회, 6회). 그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상이 주어진 후에 선호도 판단의 반응시간을 측정하였을 때, 태도 표현이 빈번했던 집단의 반응시간이 유의미하게 빠르다는 것을 발견했다(그러나 더 빈번하게 태도를 표현한 집단의 태도가 더 극화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반복된 태도표현으로 대상-평가의 연합이 강화되었으며, 강화된 연합강도로 인해 기억에서의

접근용이성(accessibility)이 높아져 반응시간의 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Fazio 등(1982)은 퍼즐을 직접 경험하고 태도를 형성하게 하거나, 혹은 간접 경험하고 태도를 형성하게 조작하였다. 이때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직접 경험을 통해 태도를 형성하였을 때 태도의 연합강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들은 태도의 자동적 활성화에 대하여는 부족한 증거들이다. 직접적인 태도 질문에 얼마나 빠르게 응답하느냐는 태도의 자동적 활성화를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참가자들의 빠른 응답이 더 효율적인 의식적 처리과정에 의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Fazio는 태도의 자동활성화 기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Neely(1977)의 실험 패러다임을 이용하였다. Neely는 범주명(bird)을 점화단어로 제시하였을 때, 범주에 속한 단어가 표적단어(robin)로 제시되면, 표적단어에 대한 단어-비단어 판단시간이 빨라짐을 발견했다. 마찬가지로 논리로 Fazio는 표적단어와 같거나 다른 정서가를 갖는 점화단어에 의해 표적단어의 정서가(價) 판단의 시간이 촉진되거나 억제된다는 것을 적용하였다(Fazio, Sanbonmatsu, Powell, & Kardes, 1986). 참가자의 과제는 표적형용사가 긍정적이나 혹은 부정적이나는 것을 가능하면 빠르게 판단하는 과제이다. 이때 점화단어는 표적형용사의 정서가와 일치하거나 불일치할 수 있다. 태도 대상이 점화단어로 제시되었을 경우 연합된 평가를 자동적으로 활성화하며, 만약 그 다음에 제시되는 표적단어의 정서가가 점화단어에 의해 사전에 활성화된 정서가와 일치한다면, 판단에 이르게 하는 활성화의 역치에 더 빠르게 도달하게 할 것이므로 반응속도가 빨라질 것이다(촉진효과). 반대로 점화단어와 표적단어의 정서가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반응속도가 더 느려질 것이다(억제효과). 이 때 판단시간의 촉진과 억제는 무점화 기준(BBB)에 비하여 짧아진다는 의미이다.

Fazio, Sanbonmatsu, Powell, 및 Kardes(1986)는 참가자들에게 70개의 태도 대상을 모니터에 무작위로 제시하고 가능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good' 혹은 'bad'

의 반응을 하게 하였다. 이들의 반응속도와 긍정, 부정의 여부에 따라 각각 4개씩의 'strong good', 'strong bad', 'weak good', 'weak bad' 단어들을 선정하여 개인 별로 총 16개의 대상이 선택되었다(예컨대 'strong good'은 반응 속도가 빠른 4개의 긍정적인 대상들). 또한 무점화 기저선을 위하여 'BBB'와 같은 통제 점화단어가 사용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을 점화단어로 하고,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의 형용사를 표적단어로 제시하고 표적형용사의 긍정, 부정 판단을 종속변인으로 하였을 때, 강한 점화단어(strong good과 strong bad)의 경우에는 점화단어와 표적단어의 정서가가 일치하면 표적단어의 판단속도가 촉진되고, 점화단어와 표적단어의 정서가가 불일치하면 억제되는 결과를 발견했다. 그러나 점화단어에 의한 반응시간의 촉진과 억제는 약한 점화단어일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강한 연합강도가 있는 태도 대상의 경우에는 단순한 노출에 의해 자동적으로 기억으로부터 활성화를 유발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Fazio 등(1986)은 이어지는 실험에서 태도의 반복표현으로 연합강도를 조작하였다. 반복적으로 태도가 표현된 대상은 연합강도가 높아짐으로 태도의 자동활성화가 더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 결과 반복 표현된 태도대상의 경우 정서가의 일치와 불일치에 따른 촉진과 억제가 더 강하게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태도의 자동활성화에 대한 연구는 사회심리학의 오랜 숙제였던 태도와 행동의 일관성에 대하여도 적지 않은 통찰을 제공한다(Fazio, 1986, 1990). 태도의 연구에서 태도와 행동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연구결과들은 사회심리학자들을 난처하게 만들었으며(LaPiere, 1934; Fazio & Zanna, 1981; Schuman & Johnson, 1976), 심지어 Wicker(1971)는 태도가 차후의 행동과 관련이 없으며,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태도라는 개념을 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후 태도 연구의 방향은 태도와 행동을 연결하는 매개변인으로 태도의 강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로 진행되었다. 태도를 강하게 하는 요인(즉 행동으로 이끄는 요인)으로 사회판단이론에서 나온 자아의

관련정도(Hovland, Harvey, & Sherif, 1957; Sherif & Cantril, 1947), 태도에 대한 자신감(Sample & Warland, 1973), 태도가 얼마나 분명히 정의되었는가(C. Sherif, Kelly, Rodgers, Sarup, & Tittler, 1973), 혹은 정서적 요소와 인지적 요소의 일치성(Norman, 1975)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Hovland(1959)와 Converse(1970)의 태도/비태도에 대한 구분은 태도의 강도가 태도-행동의 일관성에 미치는 중요한 역할에 대하여 시사한다. 태도와 비태도는 하나의 연속선으로 볼 수 있으며, 자동활성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비태도는 대상이 전혀 활성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Fazio(1986)에 의하면 기존의 태도측정방법이 태도의 자동활성화 정도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도-행동의 불일치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강한 연합강도를 가진 태도는 대상에 직면하였을 때 대상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자동적으로 활성화시키며, 이는 지각, 범주화 등 차후의 정보 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쳐 태도와 일관성 있는 처리방향으로 행동을 이끌어갈 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한다. 즉 태도의 자동활성화 정도는 대상을 지각할 때 초기단계의 주의과정부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Roskos-Ewoldsen과 Fazio(1992)는 강한 연합강도를 가진 태도 대상은 더 짧은 노출에도 잘 지각되며, 관련 없는 과제 수행 중에 우연히 제시되어도 더 잘 지각되며, 시각적 탐색과제에서 방해자극의 위치에 제시되었을 때, 더 많은 방해를 유발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태도의 연합강도는 대상을 범주화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mith, Fazio, 및 Cejka(1996)는 다양하게 범주화될 수 있는 대상의 경우 개인에게 높은 접근용이성이 있는 태도의 범주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였다. 예컨대 요구르트의 경우 '유제품'으로 범주화할 수도 있으며, '건강식품'으로도 범주화할 수 있다. 이때 개인이 체중감량으로 인해 유제품에 대한 강한 부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면 요구르트가 '유제품'으로 범주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즉 한가지 범주에 대하여 강한 정서적 반응을 지니고 있으면, 그 범주가 더 많은 주의를 이끌어 낼 것이며, 결국 대상을 그 범주로 처리할 가

능성이 높아진다는 주장이다. 태도의 대상(요구르트)이 강한 접근용이성과 부정적 평가를 지닌 ‘유제품’으로 범주화된다면, 요구르트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이는 구매행동보다는 회피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태도의 자동활성화 연구에서 사용된 반응시간의 측정은 태도측정에 대한 방법론적 혁신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기존의 태도 측정은 태도의 극단치(extremity)를 측정하는 선호도 평정에 의존하여, 태도의 강도를 측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식적으로 태도를 감추는 반응을 배제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반응시간의 측정은 자동활성화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므로, 인종차별, 성차별, 지역차별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대안적 방법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에 대해 Fazio는 ‘사람들의 머리 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방법(a bona fide pipe line)’이라고 제안했다(Fazio, Jackson, Dunton, & Williams, 1995). Fazio 등(1995)은 흑인과 백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자동활성화의 정도로 측정하였다. 이들의 실험 패러다임은 Fazio(1986)의 과거 연구를 개선한 방법이다. 그들은 참가자들에게 단어 의미치리에 관한 실험이며 몇 개의 다른 과제를 수행할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먼저 기저반응시간을 측정하기 위하여 12개의 긍정적인 형용사(attractive, likable 등)와 12개의 부정적인 형용사(annoying, disgusting 등)를 모니터에 무작위로 제시하고 가능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good’ 혹은 ‘bad’의 단추를 누르게 지시하였다. 각 단어들은 두 차례씩 제시되었으며, 참가자 개인의 반응시간이 기록되었다. 이어지는 과제는 사람의 얼굴에 대한 기억과 탐지에 대한 실험이라고 명명하였으며, 먼저 16개의 흑인과 백인의 사진이 화면에 제시되었고, 이를 암기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에 사진들에 대한 재인 검사가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반응시간을 측정하는 과제는 위의 두 가지 과제를 합친 형식이었다. 먼저 얼굴 사진이 점화자극으로 제시되었고 SOA 450ms 후에 표적형용사가 제시되었다. 참가자들은 얼굴 사진에 대한 학습과 동시에 빠르게 형용사의 긍정, 부정 판단을 내리는 것이 그들

의 임무라고 믿었다. 이 때 표적형용사에 대한 반응시간과 첫 번째 과제에서 판단한 동일한 형용사에 대한 반응시간과의 차이를 구한 것이 촉진 혹은 억제 정도를 나타내는 태도 측정치로 사용되었다. 이 실험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백인 참가자의 경우에는 흑인 사진이 제시되면 긍정적인 형용사의 판단은 억제효과를 부정적인 형용사의 판단은 촉진효과를 나타냈으며, 흑인 참가자의 경우에는 반대의 결과가 발견되었다. 또한 새로운 태도 측정치의 예언 타당도를 구하기 위하여, 이어지는 실험에서 흑인 실험자를 고용하여 백인 참가자의 행동을 친절 차원에서 평정하게 하였을 때, 형용사 판단의 촉진 정도는 행동평정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반응시간을 통한 새로운 태도 강도의 측정방법이 태도의 자동활성화 정도에서 개인차를 찾아내는 실질적인 방법임을 제시하며, 행동과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는 태도 측정 방법임을 시사한다.

이와 유사하게 Wittenbrink, Judd, 및 Park(1997)은 미국인들의 인종적 고정관념이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흑인” 또는 “백인”이라는 단어를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빨리 점화자극으로 제시한 다음,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단어들을 판단하는 반응시간에 근거하여 인종 편견의 강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최근에 Greenwald, McGhee, 및 Schwartz(in press)는 암묵적 연합 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IAT)를 이용하여 사람들의 진정한 태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들은 참가자에게 컴퓨터 화면에서 긍정적인 단어(예: 선물)가 제시되면 오른쪽 키를 누르고, 부정적인 단어(예: 재앙)가 제시되면 왼쪽 키를 누르게 훈련시킨 후, 같은 방식으로 긍정적인 대상(예: 꽃이름)을 제시되면 오른쪽 키를 누르게 하고 부정적인 대상(예: 벌레 이름)이 제시되면 왼쪽 키를 누르도록 하였다. 또한 어느 경우에는 훈련시와는 반대로 긍정적인 대상의 경우 왼쪽 키를, 부정적인 대상의 경우에는 오른쪽 키를 누르도록 지시하였다. 이때 정서가가 유사한 대상에 동일한 키를 부여하였을 때는 반응시간이 빨라지며, 반대의 키를 부여하였을 때는 반응시간이 느려지는 원리를 이용하여, 반응

시간이 상대적으로 느려지는 정도를 근거로 하여 태도의 강도를 측정하였다. 그들은 IAT를 이용하여 흑인과 백인에 대한 태도 뿐만 아니라 한국인과 일본인이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부정적 태도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과거에도 의식적인 차원이 아닌 태도의 측정 방법이 없지는 않았다. 대표적인 방법이 자율신경계의 반응치를 얻어서 태도의 강도를 측정하는 GSR이다. 이는 피부에 흠어져 있는 정서반응용 땀샘에서 분비되는 땀의 양을 측정하여 반응자가 지닌 정서의 강도를 보는 것이다(Cacioppo & Sandman, 1981). 예컨대 백인 응답자들은 흑인 실험자를 만났을 때 백인 실험자를 만난 경우에 비해서 보다 강한 GSR 반응을 보여 백인들이 가진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이나 새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동일한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GSR을 해석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었다(Petty & Cacioppo, 1981). GSR과 마찬가지로 자율신경계의 지배하에 있는 동공의 크기, 근육의 수축 등도 측정지표로 사용되었으나 모두 태도의 방향성을 알려주지 못하고, 태도의 강도라고만 여길 수 없는 해석의 문제성을 지니고 있었다(한규석, 1995). 그러나 자극에 대한 자동적 활성화를 이용한 반응시간의 측정은 태도의 방향 뿐만 아니라, 수량화된 자료를 제공하므로, 이에 대한 폭넓은 연구는 태도 연구의 새로운 차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심리학에서 전통적인 태도의 이론들은 태도의 의식적이며 의도적인 인지 처리과정을 전제로 성립되었다. 예컨대, 인지부조화 이론(Festinger, 1957), 자기지각 이론(Bem, 1972), 기대-가치 이론(Edwards, 1954), 정교화 가능성 이론(Petty & Cacioppo, 1986), 이성적 행위 모형(Ajzen & Fishbein, 1980; 오세철·윤덕현, 1982)을 들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이성적 행위모형의 기본 가정을 보면 이러한 경향성이 극단적으로 드러난다. Ajzen과 Fishbein(1980)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전제하에 의식적인 행동의도에 따라 행위를 취하며, 이 행동의도는 자신이 지닌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위 사람들의 평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태도의 의식적 처리에 중점을 둔 이론들은 상황적 자극으로 강한 태도의 대상이 제시되자마자 진행되는 피할 수 없는 자동적 처리의 과정과 이에 따라 결정된 처리과정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있었던 셈이다.

일반적으로 강한 태도 대상이 제시되면 정보처리의 초기에는 자동활성화에 의해 관련된 정서와 인지적 틀이 활성화되지만, 후기에는 의식적인 억압이나 수정과정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태도의 처리과정에서 자동적 처리와 의식적 처리의 상호작용은 태도의 강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태도의 강도가 약한 경우에는 활성화의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상에 유발된 자동적 처리의 영향을 덜 받게지만, 태도의 강도가 강한 경우에는 높은 자동활성화가 유발되기 때문에 의식적 처리가 개입될 범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나온영(1998)은 3수준 태도변화 이론을 주장하면서, 강한 태도의 경우에는 자동적 활성화가 쉽게 일어나며, 의식적 억제가 개입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더 적은 반면, 약한 태도는 기억에서 접근용이한 자료가 부족할 것이므로,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는 범위가 적어 더 많은 의식적 처리 및 우연적 활성화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고정관념의 자동적 처리

앞 절에서 우리는 태도의 자동활성화 연구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를 통해서 발전하였음을 지적하였는데, 그것은 ① 자동적 처리이론의 대두와 ② 태도 측정 상의 문제점 (특히 태도와 행동간의 괴리)이다. 고정관념의 자동적 처리에 관한 연구도 위에 기술한 두 가지 이유로부터 출발했을 바, 첫 번째 이유에 관해서는 앞에서 자세히 언급하였기에 여기서는 두 번째 이유에 관해서 언급하기로 한다.

앞에서 우리는 이전의 태도에 관한 연구의 맹점이 행동을 잘 예측하지 못하는 데 있음을 지적했는데 이러한 맹점은 기존의 고정관념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고정관념의 측정이 신뢰롭지 못한 원인은 태도

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심리학자들은 고정관념 측정 문제에 더 관심을 갖는다. 미국은 1960년대의 민권 운동의 여파로 인종에 대한 편견을 법적으로 규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미국 사회의 흑백간의 감정 대립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미국인이 흑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쉽사리 불식시킬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은 인종적 편견을 금기하고 이를 내부적으로 분출하는 소위 혐오적 인종주의, 혹은 상징적(또는 현대적) 인종주의를 갖게 되었다. 혐오적 인종주의란 백인이 평등주의 가치를 찬성하여 자신을 비편견주의자로 간주하지만, 미묘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흑인을 차별하는 태도를 말한다(Dovidio & Gaertner, 1991, 1997 참조). 혐오적 인종주의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데 많은 미국인들이 스스로가 의식적으로 자신이 평등주의자임을 굳게 믿고 있지만 그들의 무의식은 아직도 인종주의자의 탈을 벗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정관념과 편견의 연구에서 이에 관한 무의식적 처리과정 또는 암묵적 처리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수 불가결하게 되었다. 고정관념에 관한 자동처리 과정은 비단 인종주의에만 국한하지 않는데 성고정관념, 장애자에 관한 고정관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아울러 고정관념의 이중성은 서구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는 한국인에게도 나타나는데, 우리 사회에 팽배한 지역감정 그리고 남존여비의 사상이 그 예이다.

앞에서 우리는 대상이 태도에 따라 다양하게 범주화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예컨대 요구르트가 “유제품” 또는 “건강식품”으로 범주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우리가 어떤 범주에 대해 강한 연합 또는 접근 용이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같은 요구르트에 대해서 부정적 또는 긍정적 태도를 지닐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우리의 태도에 대한 이중성에 관해서는 그 동안 이수원(1995)이 적지 않은 태도 대상이 이러한 이중성을 구비할 수 있음을 밝혔고 피험자에게 이러한 이중성을 지각시킴으로써 그들의 태도를 반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연구한 바 있다. 그러므로 이수원(1995)의 연구도 태도의 암묵적 처리 또는 자동적

처리의 맥락에서 설명될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모든 태도가 이중적 구조를 띠고 있지는 않다. 우리는 환경오염, 부정축재, IMF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태도 대상에 대해서 다른 식으로 범주화하거나 이를 찬성하지는 않는다. 즉 태도는 일관성 있는 평가적 반응(Greenwald & Banaji, 1995)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태도 대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분명하고 확고하다. 그러나 이 절에서 살펴 볼 고정관념은 일종의 신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결과적으로 이중적 성격을 갖기 쉽다. 예컨대 한국인은 남아 선호 사상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아에 대해서 부정적인 고정관념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만딸은 살림밀천”이니 “딸 키우는 재미”니 하는 말들은 여아에 대한 긍정적인 고정관념도 존재함을 의미한다. 호남인에 대한 편견 역시도 상당히 이중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호남인들에 대해 부정적인 고정관념(예컨대 “믿을 수 없다” 등)을 갖고 있지만 아울러 긍정적인 고정관념(예컨대 “씩씩하다” 등)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앞에서 자동적 처리과정의 기본 원리를 논할 때 우리는 점화효과가 무의식적인 자동처리과정의 한 예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복잡한 신념들의 덩어리로 구성된 고정관념의 경우 역시도 어떠한 신념이 점화되는가에 따라 우리의 지각, 판단, 그리고 후속적인 행동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촉발시킬 수 있다. 예컨대 “용통성 없는 성격”이 먼저 점화되는 경우 우리는 대학교수 집단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되지만 또다른 경우 “학문적 호기심”이 점화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집단에 대해 긍정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자면 자동처리과정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야말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어떠한 루트를 통하여 발전되어 가며 왜 교정하기가 그토록 힘든지, 나아가 어느 부분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교정이 가능한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암묵적인 고정관념이라는 용어를 소개하였던 Greenwald와 Banaji(1995)는 대부분의 고정관념이 “어떤

사회적 범주의 구성원에게 귀인하는 자질(qualities)을 매개(mediate)하는 내성법적으로(introspectively) 파악할 수 없는 (또는 부정확하게 파악된) 과거 경험의 흔적”(p.4-5)일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사회적 집단에 관한 신념이 그 집단 구성원에 대한 판단에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이 암묵적 또는 무의식적 고정관념화(stereotyping)이다. 여기서 우리는 고정관념과 고정관념화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고정관념화는 고정관념을 사용하여 어떤 집단에 대한 정보처리나 수행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고정관념이란 단순히 어떤 사회집단이 가지고 있으리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이다.

Katz와 Brady(1933)가 형용사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다양한 민족 및 사회집단에 대해서 조사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과거 고정관념의 연구는 그 내용을 알아보는 것에 국한되어 왔다. 그러나 1970년대에 이르러 고정관념과 편견에 대한 연구는 그것의 원인과 결과에 비중을 두게 되었다. 예컨대 흑백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그들의 애매한 행동을 왜곡되게 지각한다는 연구들이 그 예인데 Sagar와 Schofield(1980)는 연필의 끝을 자기 친구의 목에 누르고 있는 아동의 슬라이드를 피험자들에게 보여 주었다. 이때 슬라이드의 주인공은 한 조건에서는 흑인으로 다른 조건에서는 백인이라도 조작하였다. 그리고 나서 연구자들은 이 애매한 상황에 대해 피험자들에게 해석을 내리도록 하였는 바, 흑인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주인공의 성격을 판단자들이 “공격적”이라고 평가한 데 비해서 백인이 등장한 경우에는 “장난이 심한”이라고 평가함을 발견하였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우선 고정관념이 진정으로 암묵적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만일 우리가 의식적으로 판단(자기보고식)한 결과와, 고정관념을 측정 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수집된(주로 반응시간) 암묵적인 고정관념의 정도가 같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태여 암묵적인 고정관념이라는 개념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Dovidio, Kawakami, Johnson, 및 Howard(1997)는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자

들은 흑인과 백인의 얼굴 스케치를 컴퓨터 모니터 상에서 제시하되 문자열(예, pppp)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얼굴이 명확하게 백인인지 흑인인지를 인식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내용을 지닌 목표단어 자극을 제시하고 그 단어가 ‘사람’의 범주와 관련 있는지 없는지를 가능한 빨리 ‘네’, ‘아니오’로 답하게 하였다. 연구자들은 목표단어에 대한 판단과제에 있어서 인종적 점화효과가 나타날 것을 가정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백인 피험자들은 흑인 점화과제에서보다 백인 점화과제에서 긍정적 단어에 대한 판단 속도가 더 빨라지는 반면, 부정적 단어에 대한 판단은 더 느려질 것이라 예상했다. 경험적인 증거들은 이러한 가설을 지지하여 주었는 바, 백인이 점화된 경우 백인 피험자들이 긍정적인 단어가 ‘사람’이라는 범주와 관련이 있다고 더 빠르게 대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아울러 이렇게 고정관념에 대한 스스로의 자각이 없는 상태에서 측정된 암묵적인 고정관념 점수, 즉 단어에 대한 판단속도와 자기보고식 고정관념의 정도가 과연 일치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기존의 고정관념 척도, Modern Racism Scale 그리고 Attitude Toward Black 척도의 점수들과 암묵적인 고정관념 점수와의 상관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암묵적인 고정관념의 양과 자기보고식 고정관념 점수와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는 바, 이는 의식적인 상태에서 사람들이 드러내 보이는 고정관념의 정도와 자각이 없는 상태에서 표출하는 고정관념의 양이 일치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외현적인 고정관념 척도가 사람들의 미묘한 고정관념을 측정함에 상당한 한계가 있음을 제시하여 준다.

이외에도 암묵적인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많지만 그들의 결과는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Devine(1989)은 흑인 피험자들에게 일련의 단어를 역치 이하로 제시하되 단어의 80%, 혹은 20%가 미국 흑인에 대한 고정관념적 내용들이었다. 그 후 인종이 불분명한 남자에 대해 판단을 내리게 하였다. 먼저 제시된 단어의 20%가 단지 흑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포함했던 조건에서보다 80%가 고정관념적 단어였던 경

우 제시되었던 인물이 더 적대적이라고 판단함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성은 외현적인 고정관념 측정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에게서나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에게서 모두 똑같이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그 밖에도 Gaertner와 Mclaughlin(1983) 그리고 Gilbert와 Hixon(1991) 역시 비슷한 결과를 얻었는 바, 이는 의식적인 고정관념 측정치로는 거의 추적이 불가능한 고정관념의 암묵적인 구조가 사람들의 마음 속 깊이 내재해 있음을 시사해준다.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과 마찬가지로 성에 대한 고정관념도 비슷한 형태의 암묵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하였다. Higgins, Rholes, 및 Johns (1979)는 피험자들에게 의존적인 행동을 점화시키고 여성 표적 인물의 성격을 평정하라고 하면, 표적 인물이 남성인 경우보다 더 의존적인 것으로 판정함을 발견하였다. 목표 인물에 대한 판정 이전에 공격성 맥락을 점화시키고 남성이나 여성 표적인물에 대해 성격 판단을 하라고 하면 동일한 점화 자극을 제시받았어도 남성을 더 공격적인 것으로 판정함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이 점화 자극 이전에 이미 확고히 고정되어 쉽게 변화시킬 수 없는 성에 대한 암묵적인 고정관념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고정관념적 사고는 작은 기회만 주어지더라도 즉각적으로 두드러지는 현상을 보여준다.

이상으로 우리는 암묵적인 고정관념과 그의 자동처리 현상을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과 성에 대한 고정관념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 볼 문제는 편견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인지적인 구조는 어떻게 서로 다른가라는 점이다. Lepori와 Brown(1997)은 편견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간에 고정관념의 지식 상에는 차이가 없음을 밝혔다. 그 이유는 흑백인에 대한 고정관념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지식의 적용에 있어서는 두 집단간에 차이가 있어서, 편견이 많은 사람은 범주명을 점화시켰을 때 표적인물의 행동을 더 부정적으로 평정한 반면 편견이 적은 사람은 아예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아서 점화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범주를 활성화하는 경우 고정관념의

무의식적 활성화는 실무물로 나타나지 않고 선택적으로 나타난다. 한편 고정관념의 내용을 점화하는 경우, 편견이 많고 적은 피험자간의 점화효과에서의 차이는 없었다. 그 원인은 두 집단간에 흑인에 대해 지니고 있는 고정관념적 지식의 양은 같았기 때문이다. 고정관념은 두 가지 방식으로 활성화되는데 고정관념 그 자체가 점화되거나, 혹은 범주가 점화되는 방식이다. 그런데 그 효과는 다르게 나타나는데, 편견이 많은 사람이 범주명을 점화했을 때 표적 인물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인상을 형성하는 이유는 그들이 편견이 적은 사람에 비해서 부정적 특성과 범주간의 연합을 더 강하게 연결시켰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과제는 고정관념의 변화이지만 인지적 자동화 이론을 적용한 고정관념의 변화에 관한 연구는 아직도 초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예컨대, 역고정관념화가 그 예인데, 이에 관해서는 나은영(1997)의 논문을 참조할 것) Devine (1989)은 편견이 적은 사람은 새로운 신념을 표상하는 인지 구조(즉, 평등개념, 고정관념 거부)를 형성한 사람이라고 가정한다. 그리고 고정관념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념구조의 형성과 더불어 의도적인 억제를 해야 하는 바, 편견이 적은 사람이 어느 정도 고정관념의 자동처리에 의식적인 억제 기능을 확보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는 고정관념의 연구에서도 자동적 처리와 의식적인 처리의 관계를 보여준다.

정서의 자동처리 기제

정서에 대한 인지적인 평가론자들은 개인의 정서 경험은 각 유기체가 환경을 평가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 때문에 달라진다고(Arnold, 1960; James, 1890; Lazarus, 1968; Plutchik, 1980; Roseman, 1984; Scherer, 1982)고 하였다. 이들의 입장에 따르면 정서 역시도 인지적인 판단과정을 통하여 경험되기에 정서를 유발시키는 상황이나 원인에 대한 평가과정이 특정 정서를 경험하는 데에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연구자들(Bower, 1981; Zajonc, 1980; Niedenthal, 1990; Kitayama, 1990)은 정서적 각성이 스스로의 자

각이 없는 수준에서, 매우 자동적으로 경험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이수정, 권준모 및 이훈구, 1998 참조). 이들 연구들은 자극에 대한 자동적인 처리가 의식적인 처리과정의 정서적인 내용을 바꾸어 놓을 수 있으며, 이런 현상은 자극에 대한 의식적인 인식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런 결과들이 시사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원리는 아무런 인지적 추론 없이도 선호도가 생길 수 있다 ("Preferences need no inferences")는 Zajonc(1980)의 말로 단적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주장의 핵심은 의식적이며 의도적인 처리과정이 굳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람들은 정서를 유발하는 자극에 대해 자신도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반응한다는 것이다.

정서 이론가들이 정서의 처리과정에 대한 획기적인 이론적 모형을 아직까지 제시하지 못하였는데 비해, Bower(1981, 1991)는 자신의 인지적 연합망 모델을 정서의 처리과정까지 확장하였다. 그는 특정 정서와 관련된 외부 사건이나 과거 경험 또는 특정한 생리적인 패턴은 서로 가까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 중 하나의 연결 고리가 각성하게 되면 그 영향력이 주위의 연결망을 타고 퍼져 나가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이런 활성화 상태는 후속적으로 입력되는 정보의 처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이론적인 가정은 강력한 하나의 가설을 제안하는데 그것은 바로 "정서 합치효과"(emotion congruence effect)이다. 즉 특정 정서가 일단 점화가 되면 그 정서와 일치하는 정보가 더 접근용이해지며 따라서 그러한 정보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여러 경험적 연구들은 부호화 시와 재인 시의 정서가가 일치할 때에 더 재인율이 높음을 보고한다(Blaney, 1986; Isen, 1984, 1987). 즉 본 실험과는 관련 없는 다른 종류의 강화로 긍정적인 기분이 유발된 피험자들은 후속적으로 주어지는 목표 인물에 대한 부정적인 속성들을 잘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반대로 동일한 대상 인물에 대해서 제시되지도 않았던 긍정적인 속성을 많이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반면, 본 실험 이전에 부정적인 기분이 유발된 경우에는 목표 인물이 부정적인 속성들을

더 많이 지니고 있다고 보고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 Bargh(1989)는 이런 현상에 대해 정서적 단서가 그와 일치되는 기억표상을 점화시켜서 사실상 관련이 없는 과제에도 기분으로 인한 맥락효과가 자동적으로 전해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정서가라는 단서가 정서적으로 구성된 기억 중 특정 기분과 연합된 기억구조의 접근용이함을 증가시켜서 비록 관련이 없는 구조라도 일단 주어진 정서와 일치하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표상구조보다 더 활성화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는 것이다(Bower & Cohen, 1982). 이렇게 정서 자극도 일단 점화가 되면 매우 자동적으로 그와 일치하는 기억의 표상을 활성화시키게 되는데 Hansen과 Hansen(1988)은 정서로 인한 점화효과를 정서의 접근용이성(emotive accessibility)이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Hansen 등(1988)은 특정 정서가 또한 만성적으로 접근용이한 개념적 범주(Bargh, 1989; Higgins, Bargh, & Lombardi, 1985)처럼 다른 개념들에 비해 더 접근용이한 범주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지각과정에서의 "pop-out" 패턴다임을 이용하여 정서 자극에 대한 매우 자동적인 처리기제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들은 피험자들에게 여러 사람들의 사진을 보여 주고 어떠한 정서를 지닌 표정들이 일관성 있게 더 빨리 탐지되는지를 보았다. 그 결과 그들은 피험자들이 화난 얼굴이 제시되었을 때, 웃는 얼굴에 대해서보다 더 빨리 반응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자극으로 제시되는 얼굴이 몇 개이냐에 따라 웃는 얼굴을 탐지해내는 속도는 민감한 영향을 받았으나 화난 얼굴에 대한 탐지 속도는 영향을 받지 않음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한 정서를 지닌 자극, 즉 화난 얼굴에 대해서는, 자각자들이 굳이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도 비교적 빨리 반응하며 방해 자극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이러한 탐지과정은 병렬적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Hansen 등(1989)은 이러한 정서에 대한 처리과정이 자동과정의 속성을 그대로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Hansen 등(1988)의 연구가 의식적인 수준에서 만성적으로 접근가능한 정서자극에 대한 자동처리과정을

연구하였다면, Murphy와 Zajonc(1993, 1995)은 자각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자극의 정서가가 처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 그들은 “정서 우선성 가설 (affective primacy hypothesis)”을 제안하면서 전혀 의식할 수 없는 상태로 정서 자극(얼굴 표정)이 주어지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정서가가 후속적인 판단 과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Murphy & Zajonc, 1993, 1995). 그들은 웃는 얼굴과 찡그린 얼굴을 4 msec라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제시하고 뒤이어 중립적인 한자에 대한 호오도를 측정하여 본 결과 얼굴 표정의 정서가가 후속적인 판단에 강력한 동화효과를 미침을 발견하였다. 즉 점화자극으로 웃는 얼굴을 제시받았던 피험자들은 후속적으로 주어진 낯선 한자에 대해서 점화자극이 주어지지 않았던 조건보다 더 높은 호감도를 보고하였으며, 반면 찡그린 얼굴이 점화된 경우에는 얼굴의 정서가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후속적으로 주어진 한자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미있는 점은 얼굴 표정을 의식할 수 없는 수준에서 보여준 경우에 나타나던 표정의 정서가로 인한 동화효과는 얼굴을 의식할 수 있도록 길게 제시한 경우 아무런 표정의 정서가로 인한 효과가 없었다는 점이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의식적인 자각 수준 밖에서 발생한 정서는 확산적으로 퍼지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자각 수준 이하로 제시된 정서적 점화가 정서유발원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자극의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정서적 점화를 의식적인 수준에서 제시받게 되면 정서 유발자극의 인지적 요소에 대한 평가나 자신의 상태에 대한 귀인 과정이 동반되어 정서 자극의 영향력이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즉, 비의식적 정서는 특정한 목표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 마치 액체와 같이 관련되지 않은 자극에까지 스며들고, 퍼지고, 섞여 그 자극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주장은 의식적인 판단과정이 개입된 경우에 이루어지는 처리의 과정과 아무런 자각이 없는 상태에서,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이루어지는 처리과정이 질적으로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일단 자신의 정서상태를 유발한 근원이 명확해지면 그로 인한 효과가 의식적인 개입을 통하여 사라질 수 있는 현상에 대해 Jacoby와 그의 동료들(1989)은 자신들의 기억귀인모델에 의해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Jacoby, Kelley, Brown, 및 Jasechko(1989)는 자신의 상태의 원인에 대해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자극의 특성 때문이라고 오귀인시키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두 가지 실험 과제를 선정하였는데 우선 피험자들에게 일련의 이름들을 모두 외우게 한다. 이때 실험자는 그 이름들이 전화번호부에서 선정한 이름들이라고 얘기해 줌으로써 그 이름들이 유명 인사들의 이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단 인식시켜 준다. 그리고 나서 이들 중 반에게는 일련의 이름들(반은 유명 인사, 반은 일반인들)에 대해 즉시 유명 정도를 판단하게 한다. 그러나 다른 조건의 피험자들은 일단 되돌려 보았다가 다음날 다시 오게 하여 일련의 이름들의 유명 정도를 판단하게 한다. 이 때 중요한 점은 즉시 판단 과제를 수행한 경우에는 자신의 이름에 대한 친숙도가 이전 훈련 때문이라는 것을 의식하게 되어 각 이름에의 유명 정도를 제대로 판단하지만, 그 다음날에 또 다른 이름을 주고 유명 정도를 판단하게 한 경우에는, 자신이 그 이름들 중 일부에 왜 친숙한지 즉 그 이름들의 주인공들이 정말 유명 인사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전날의 훈련으로 인해 친숙해진 것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므로 이전에 학습된 이름들도 유명하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즉 자신의 이름에 대한 친숙성의 원인을 명확하게 깨달은 경우에는 그로 인한 영향을 통제하지만 그 친숙성의 원천이 애매한 경우에는 후속적인 판단에 그로 인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Murphy와 Zajonc(1993, 1995)의 정서 점화 효과 역시 이 맥락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자신의 정서상태가 무엇 때문에 유발되었는지를 모르는 경우에는 일단 자동적으로 활성화된 정서 자극의 양식대로 후속적인 과제에 대응하게 되지만 자신의 기분 상태의 원천이 얼굴 표정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경우에는 제시받은 얼굴의 표정 정서가로 인한 영향을 인지적으

로 통제할 것이다.

Schwarz와 Clore(1983) 역시 날씨로 인한 기분 변화가 과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사한 관찰을 하였다. 즉 피험자들이 자신들의 기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경우에는 날씨로 인한 기분 효과에 의해 후속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판단이 영향을 받지만, 자신의 기분을 변화시키는 잠재적인 원인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된 경우에는 그로 인한 기분 효과가 더 이상은 후속적인 판단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Wegener와 Petty(1995, 1997)는 이런 현상이 자신의 상태의 원인에 대한 부가적인 귀인과정 때문이기보다는 지각자들이 스스로의 판단을 중립으로 지키려는 교정 욕구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일단 어떠한 외적 또는 내적 변화에 의해서든 간에 자신의 판단이 왜곡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이미 자동적으로 활성화된 처리 양식에 대해 (그것이 동화양식이건 대비양식이건) 부가적으로 인지적인 노력을 더 기울여, 좀더 점화된 양식과는 독립적이며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교정적인 판단 과정은 사회심리학의 여러 현상들을 설명하는 바, 앞에서 지적되었던 여러 가지 편파적인, 즉 완전히 자동화되어 더 이상은 인지적인 노력이 필요 없는, 자동 처리 과정들이 어떻게 부가적으로 인지적 통제 즉 제지가 가능한지를 보여준다. 정서로 인한 점화 효과는 특히 이러한 인지적인 제지 과정이 개입되는 경우 정서 자극의 자동적인 확산 효과가 절감될 수 있음이 이후 여러 실험 결과들에서도 밝혀지고 있다.

위의 여러 연구들을 요약하자면, 정보에 의한 정서적 각성 역시도 의식적인 판단과정을 거치기보다는 매우 즉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며, 정서자극으로 인한 내적인 상태의 변화에 대한 통찰이 없는 경우, 특히 자신의 상태가 왜 변화되었는지를 모르는 경우에는 현재의 기분이나 정서 상태가 후속적인 판단, 사고, 심지어는 행동에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만일 정서 반응이 부가적인 인지적 개입 없이도 즉각적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처리의 과정이 자극에 대한 통제적인 의식과정과 질

적으로 다르다면, 이 단계에서 우리가 지닐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의문은 그러한 정서반응이 어떠한 양식으로 일단 저장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앞에서 잠시 언급하였다시피, Bower(1981, 1991)는 정서 연합망 모델을 제안하면서 정서가 의미론적인 연합망 조직의 기초적인 구도를 형성하는 주요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즉 신념이나 과거의 사건 그리고 생리적인 반응 패턴들은 특정 정서를 중심으로 그와 관련된 요소들끼리는 더 가깝고 더 강한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서적 반응에 일관성이 있는 정보들의 경우에는 연결 통로를 빠르게 퍼져나가겠으나, 불일치한 정보들의 경우, 오히려 상반되는 연결 통로를 자극하여 억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제안하였다. 그러나 그는 정서의 기본 연결고리가 의미론적인 네트워크와 질적으로 다를 것이라고는 가정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Niedenthal, Setterlund, 및 Jones(1994)는 특히 정서 관련정보의 경우, 기존의 정보처리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명제로 구성되는 의미론적인 부호화과정과는 비교적 독립적인 신체적(somatic)수준에서의 신경학적인 단서들이 기본 정보단위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 그들의 주장은 최근 합의된 정서에 대한 정의(Izard, 1992)와도 일치하는 바, 정서란 일종의 인지적인 평가과정일 뿐 아니라 신경생리학적 과정, 감각 운동 과정 그리고 그에 의한 동기적 과정들로 구성된다는 것이다(이수정, 권준모, 및 이훈구, 1998 참조).

Ledoux(1989)는 특히 공포에 대한 신경생리학적인 일종의 정서 반응은 대뇌의 해마를 통한 표상과정보다 훨씬 하위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주장한다. 그는 편도체가 매우 원시적이면서도 거의 자발적인 수준의 공포 반응을 담당하며 이러한 편도체의 반응은 대뇌 피질로부터의 통합된 표상과정보다 훨씬 빨리 일어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최근 Bechara 등(Bechara, Tranel, Damasio, Adolphs, & Damasio, 1995)은 정서가 포함된 암시적인 기억 내용은 해마가 손상된 경우에도 편도체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신경 생리학적인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들은 해마가 손상되고 편도체의 기능은 정상인 뇌

손상 환자들의 경우, 해마가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쾌한 평음에 대한 자율 신경계의 반응이 조건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비록 그들은 평음과 연결된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불쾌한 평음에 대한 정서적 반응은 자율 신경계 수준에서 비교적 아무런 문제없이 신속하게 습득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들은 정서와 인지의 상대적인 우선성에 대한 Lazarus(1984)와 Zajonc(1984)의 논쟁을 상기시킨다. Lazarus(1984)는 인간의 정서란 타인과의 관계적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따라서 인지적인 평가과정이 정서 경험의 필연적인 요건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비해서 Zajonc(1984)은 인지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정서적 과정도 존재할 수 있다고 하면서 'mere exposure' 즉 단순 노출 효과가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자신이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특정 자극에 대해 자주 노출되는 경우에도, 그 자극에 대한 호감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Zajonc(1984)은 이러한 단순 노출 효과를 보더라도 인지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형태의 정서적 경험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렇게 자각이 없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정서 과정을 자동처리 과정의 일부로 규정하려는 근거는 이런 과정이 Bargh(1989)가 제안한 자동적 과정의 기준 중 적어도 두서너 가지를 충족시키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지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정서의 자동처리과정은 여러 가지 다양한 점화 패러다임에 의해 재차 확인되어지고 있다. Niedenthal(1990)은 앞에서 잠시 언급하였던 Murphy와 Zajonc(1993, 1995)의 실험 패러다임과 유사한 절차를 사용하여 비언어적인 정서적 정보가 후속적인 낯선 자극의 평정에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그는 2ms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웃는 얼굴과 메스꺼운 얼굴을 피험자들에게 제시하고 연이어 낯선, 중립적 자극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웃는 얼굴에 의해 점화된 조건의 피험자들은 부정적 정서가 점화된 조건의 지각자들보다 낯선 만화의 주인공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정서 자극의 점화효과는 그 후 다양한 양식의 점화 자극을 사용하여 그 영향력이 재검되었는데

Erber(1991)는 Strack, Martin과 Stepper(1988)의 얼굴 피드백 방식, 즉 펜을 물게 하여 피험자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웃는 얼굴과 굳은 얼굴을 짓게 한 경우 가상인물에 대한 후속적 평정에서 자신들의 얼굴 표정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성향 평정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비언어적 정서 자극을 점화 자극으로 이용한 또 하나의 실험은 Kitayama와 Howard(1994)의 목소리 정서가를 이용한 점화절차이다. 그들은 목소리의 정서가와 언어적 정보의 정서가를 독립적으로 조작하였다. 그들은 단어가 제시되는 목소리의 정서가와 단어의 의미론적인 정서가가 일치하는 경우 가장 재인율이 좋았으며 중립적인 목소리로 단어들을 제시한 경우보다 정서가가 있는 목소리로 단어들을 제시하였던 경우 단어 재인 반응시간이 훨씬 빨랐음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나아가 이러한 결과는 정서 자극의 의미론적인 정보 외에도 목소리와 같은 지각적인 단서(perceptual code)들이 정서적 정보들의 의미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해석하였다. Pratto(1994)는 사람들이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서도 만성적으로 자극의 정서가를 평가하는 경향을 "자동적인 경계(automatic vigilance)"라고 명명하였다. 정서정보를 우선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성은 Fazio와 그의 동료들(Fazio, Sanbonmatsu, Powell, & Kardes, 1986)에 의해서도 확인되었는 바, 부정적인 태도와 관련된 대상에 대해 반응하는 시간이 중립적인 대상에 대한 반응시간보다 훨씬 빠르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Bargh 등(Bargh, Litt, Pratto, & Spielman, 1988)도 피험자들이 사람들의 성향을 묘사하는 단어들에 대한 의미론적인 유사성 판단보다 동일한 성향 형용사가 나쁜 속성이나, 좋은 속성이나를 평가해야 하는 경우, 판단에 걸리는 시간이 더 빠르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대상의 의미론적인 차원보다는 평가적인 차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함을 보여주며 이는 다시 말해서 대상에 대한 정서적인 호오도는 대상이 지니는 의미가에 대한 의식적인 처리보다 훨씬 자동적으로 처리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Pratto, 1994).

Kitayama와 Howard(1994)는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

로 정서적 정보는 두 가지 절차를 통해서 인지적인 과정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데 우선 정보의 정서가에 대한 전의미론적인(presemantic) 활성화가 일어나고 이어서 그러한 정서가의 의미범주(semantic categories)가 파악된다고 주장하였다. 일단 전의미론적인 정서가가 활성화되고 연이어 그 의미범주가 파악되어야 그 이후 Bower(1981, 1991)나 Anderson(1976)이 설명한 대로 기억저장소에서 특정 정서범주에 일치하는 연합망이 활성화되고 그와 관련된 연결고리들을 따라 그 활성화가 퍼져 나간다는 것이다. Pratto(1994) 그리고 Kitayama와 Howard(1994)의 설명은 Niedenthal 등(1994)의 정서 정보에 대한 다단계적 표상체계와 일부 일치하는 점이 있다. 그것은 다른 아니라 정서 정보에 관한 한 명제들로 구성되는 의미론적인 코딩(semantic coding)외에 정보나 대상의 정서가에 대한 좀 더 원시적이고 훨씬 지각적인 수준의 전의미론적(presemantic)코딩 단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과정이 신경생리학적 반응으로 이루어지든 아니든 간에, 정보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서가에 대한 판단은 비교적 세분화되지 않은 원시적인 형태로 후속적인 판단과정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이 절에서는 비언어적 점화 자극으로 인한 정서정보의 자동처리과정의 특성을 탐색하여 보았다. 이러한 연구 맥락은 기본적으로 Davidson과 Cacioppo(1992)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정서를 자동 처리의 수준에서 이해하려는 시도의 일종이다. 즉 정서란 어떠한 통제 과정의 개입 없이도 촉발될 수 있으며, 사소한 기분의 변화도 주의 과정에 영향을 주어 기억의 표상 내용에 대한 접근가능성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Bower & Cohen, 1982; Clark & Isen, 1982)는 것이다.

자동화된 사회적 행동

이제까지 살펴 본 사회적 정보의 자동적 처리는 대부분 사회지각, 인지, 정서의 차원에서 다루어졌다. 의식적인 의도나 자각 없이 대상에 단순히 노출되는 것으로 태도나 고정관념이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며,

성격특질로 행동을 자동적으로 범주화하며, 타인의 행동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성향 귀인을 하는 등의 사회심리적 현상은 모두 자극이 주어졌을 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정서적 혹은 인지적 반응에 관한 내용들이다. 이러한 자동적 처리에 관한 다양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환경에 대한 행동적 반응은 여전히 의식적 통제하에 있다고 가정되어지고 있다. 즉 이러한 대상에 대한 정서·인지 반응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나, 궁극적인 행동결정 자체는 의식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되어졌다. 예컨대 Devine(1989)의 편견 모형에 따르면 표적인물의 특성에 의해 고정관념은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나, 편견적 행동단계에 있어서는 자신의 관련 가치에 의해 의식적 선택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약 100년 전 William James(1890, p.526)는 사고운동행위(ideamotor action)의 원칙을 통해서 행동반응에 대한 상상이나 생각은 그 반응을 행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다시 말하면 행동반응을 자동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자신의 의지와 관련 없는 행동을 자동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Mischel(1973)은 성격에 대한 그의 사회-인지 이론(social-cognitive theory of personality)에서 개인이 특정 상황에 들어가면, 상황은 개인에게 독특한 의미와 감정반응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행동의 목표나 목적, 혹은 행동의 과정과 같은 행동반응을 유발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지각-행동'의 직접적이며, 자동적인 연결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Carver, Ganellen, Froming, 및 Chambers(1983)는 참가자들에게 공격적인 특질을 나타내는 단어나 중립적인 단어를 점화시켰다. 그리고 참가자들은 별개의 실험이라고 소개된 후속 실험에서 '선생'의 역할에 배정되어 실험 협조자인 '학생' 역할의 사람에게 문제를 주고 틀릴 경우에 전기쇼크를 주도록 지시 받았다. 그 결과 공격적인 특질 단어가 점화된 집단은 '학생'에게 더 오랜 동안 전기쇼크를 준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전기쇼크를 주는 지시를 받았으므로, 효과에 의식적인 의도가 포함되었다. Bargh, Chen, 및 Burrows(1995)의 연구에서

는 참가자들의 행동이 아무런 실험적 지시 없이 자연스럽게 표출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하였다. 그들은 대학생 참가자들을 언어능력 검사라고 명명된 실험에 참가시켰다. 그리고 문장완성과제를 통해서 한 집단에게는 ‘예의 바른(polite)’과 관련된 단어를 접화시키고, 다른 집단에게는 ‘무례한(rude)’과 관련된 단어를 접화시켰다. 그리고 과제를 마치면 같은 복도 끝에 있는 방에 있는 실험자를 찾아 알리도록 일러주었다. 실험자는 방문을 반쯤 열어 둔 채로 다른 연구자와 대화를 하는 척 연기하고 있었으며, 참가자가 과제를 끝마친 후부터 실험자에게 자신이 과제를 마쳤다고 알리는 순간까지의 시간을 비밀리에 측정하였다. 이 경과시간이 ‘예의 바른’ 행동을 나타내는 종속변인으로 사용되었다. 즉 경과시간이 길수록 실험자의 대화 도중에 방해가 되지 않게 예의를 차려 더 많이 기다렸음을 나타낸다. 그 결과 ‘무례함’ 점화조건의 참가자들의 경과 시간이 ‘예의 바른’ 점화조건의 참가자들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짧았음이 밝혀졌다. 이들의 또하나의 실험에서는 노인과 관련된 단어를 접화시켰으며, 종속변인으로는 실험 후 실험실에서 나와 복도로 걸어가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이때 노인과 관련된 단어의 점화가 중립적인 단어의 점화에 비하여 걸음걸이의 속도를 느리게 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물론 두 가지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실험의 목적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참가자가 자각하지 못하게 활성화된 행동표상이 자동적으로 행동반응에 영향을 주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해 준다.

Wegner와 그의 동료들이 제안한 아이로닉 처리모델에서도 자동적 행동활성화의 가능성을 제시한다(Wegner, 1994). Wegner의 아이로닉 처리모델은 원하지 않는 생각을 통제하는 기제에 대한 설명이다. 예컨대 학생들에게 하얀 꿈을 머리 속에서 생각하지 말도록 요구하였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유롭게 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하얀 꿈을 생각하지 말라는 요구와 함께 인지적 용량을 차지하는 과제를 주었을 때, 학생들은 오히려 더 많이 하얀 꿈을 머리 속에서 떠올린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사고의 통제가 두 가지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였다.

원하지 않는 생각을 떠올리지 않으려면, 먼저 원하지 않는 사고가 머릿속에 존재하는지를 탐색하는 과정과 만약 존재한다면 이를 의식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예컨대 의식적으로 다른 내용을 생각하는 과정). 원하지 않는 사고를 탐색하는 과정은 처리용량이 필요하지 않은 자동적 처리과정인데 반해, 이를 제거하는 과정은 처리용량이 필요한 의식적 처리과정이다. 그러므로, 인지적 용량이 요구되는 과제를 하얀 꿈을 생각하지 말라는 지시와 함께 부여하면, 하얀 꿈이 머릿속에 있는지를 탐색하는 자동적 처리과정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반면, 의식적 처리과정은 장애를 받게 된다. 이것이 하얀 꿈을 생각하지 않으려는 시도가 아이로닉하게도 하얀 꿈을 더 떠오르게 한다는 이론이다. Ansfield와 Wegner(1996)는 아이로닉 처리모델을 자동적인 행동에도 적용하였다. 고전적인 Chevreuil의 착시에서 사람들에게 무게추에 실을 매달아 지면에서 일정 간격을 두고 흔들리지 않게 들고 있도록 지시한다. 이때 무게추는 흔들리게 되며, 그것도 흔들리지 않도록 지시 받은 바로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연구자들은 이를 아이로닉 처리과정으로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일정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게 하려는 사고 자체가 자동적으로 활성화되어, 오히려 그 방향으로 근육의 움직임을 일으키는 아이로닉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상황적 자극의 제시를 통한 사회적 행동의 자동적 활성화는 외부의 자극이 행동의 표상을 접근용이하도록 하여 그 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자동화된 ‘지각-행동’의 연결고리가 존재하며, 이것이 정신적 표상으로 구조화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가설은 일찍이 아동이나 원숭이의 모방행동에 대하여 Koffka(1935)와 Piaget(1946)의 주장에서부터 나타난다. 그들은 모방행동은 지각된 행동과 실행된 행동이 동일한 표상을 공유하므로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Prinz, 1990). 더욱 구체적으로 Carver 등(1983)은 행동도식 모델(behavioral scheme model)을 통해 동일한 유형의 행동에 대한 지각과 행동의 표상은 많은 공통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그로 인해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관대한 행동을 지각하면, 자신의 관대한 행동에 대한 표상이 활성화되어 접근용이해지고, 상황이 허락한다면 그 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Schank와 Abelson(1977)의 스크립트 이론(script theory)도 연속된 행동을 이해하고, 실행함에 동일한 인지적 구조가 사용된다고 주장하였으며, Berkowitz(1984)는 단순한 폭력적 자극의 제시가 폭력적 사고와 정서 뿐만 아니라 폭력적 행동까지 확산되어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Bargh 등(1996)에 의한 행동의 자동활성화에 관한 연구들은 역치이하의 점화를 이용한 광고논쟁과 구별될 필요가 있다. 1960년대에 영화의 프레임에 역치이하로 펄시콜라를 제시하면, 사람들이 영화를 보면서 펄시콜라를 사서 마시는 행동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작은 성공적이지 않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Kihlstrom, Banrhardt, & Tataryn, 1992). Bargh의 실험에서 점화시킨 표상은 행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특질들이며(예의 바른 혹은 무례한 행동), 이는 행동반응의 표상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펄시콜라 병의 이미지를 제시하는 것은 ‘펄시콜라’, ‘음료수’ ‘콜라’등의 표상을 점화시킬 뿐, 이것이 ‘마시다’ 혹은 ‘사다’와 같은 행동표상으로 연결되려면 건너야할 몇 개의 단계가 더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행동의 표상이 점화되어 행동으로 연결되려면, 그 행동이 일어날 수 있는 적절한 상황이 존재하여야 하며, 개인이 특정 상황에서 지니고 있는 목표와 일치하여야 한다. Bargh 등(1996)의 실험에서는 점화된 행동표상이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 준비되었으나, 영화관에서 영화를 시청하는 도중에 일어나 펄시콜라를 사러 가는 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상황적 제약을 지닐 수밖에 없다.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지식 구조의 자동활성화에서 접근용이해진 표상이 사용되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가(applicability)에 따르기 때문이다(Higgins, 1996). 즉 Bargh의 실험에서 ‘노인’의 표상이 점화된 참가자가 실험이 끝나자 종합건강검진을

예약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글의 처음에 소개된 산수문제를 풀고 난 아동의 경우에는 ‘사과’라는 표상이 활성화되고, 바로 이어지는 상황이 목표와 적용성에서 일치하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적 행동의 자동활성화는 ‘지각-행동’의 자동적 연결뿐만 아니라, 상황적 자극이 개인의 목표나 동기를 직접적으로 활성화함으로써도 가능함이 밝혀졌다. 예컨대, Bargh, Gollwitzer, 및 Barndollar(1995)는 학생들에게 ‘성취’와 관련된 개념을 점화시켰을 때, 단어 찾기 퍼즐에서 통제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더 장시간 몰입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Osgood(1953)은 사회적 대상의 의미를 평가차원에서 연구하는 가장 일차적인 이유는 이것이 차후의 즉각적인 접근·회피 행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사회심리학자들이 사회지각, 태도, 고정관념 등에서의 인지적 중재과정에 관심이 있는 것도 이들이 궁극적으로 사회적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행동의 자동활성화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사회적 행동 역시 다른 심리적 반응(인지, 정서)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노력 없이 유발될 수 있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물론 미약하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들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행동의 설명과 예측에 관심이 있는 사회심리학자들에게 중요한 통로를 열어준다는 중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

논 의

사회적 정보의 자동적인 처리가 지식구조의 자동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지각과 사회적 사고과정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정서 및 사회적 행동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들은 사회심리학의 의미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준다. 즉 인간의 심리적 상황(Lewin, 1935)의 중요한 부분이 자동적 활성화와 자동적 처리 절차의 우산 아래 있는 셈이다. 우리가 원하고, 느끼고, 근육을 움직여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것과 별개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Sorrentino와 Higgins(1986, p.9)는 인지와 동기

가 마치 피비우스의 띠와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제안했다. 즉 우리의 사회적 인지과 사회적 동기가 나눠어질 수 있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안과 밖이 존재하지 않는 연결체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 Bargh (1996)는 사회심리학이 사회인지(social cognition)에서 사회점화(social ignition)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다시 말하면, 자동처리의 원칙들은 사회인지에만 제한되지 않고 동기나 사회적 행동반응의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Gollwitzer, 1990).

사회심리학의 몇 가지 분야에서 살펴본 사회적 정보의 자동처리는 근본적으로 IF-THEN의 연결로 개념지을 수 있다(Anderson, 1983; Bargh, 1992; Smith, 1984). 만약 인지적 상황에서 특정한 조건이 주어지면, 특정한 처리가 종결되어지는 과정이다. Shiffrin과 Schneider(1977)는 이러한 자동적인 IF-THEN의 관계가 자극이 제시된 후에 진행되는 정신적 처리과정의 반복과 일관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 정보의 자동처리는 100년 전 William James(1890)가 언급한 습관의 발달이나 행동주의자들의 규칙성 학습을 통한 조건화 과정과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외부의 자극과 그를 처리하는 연결과정이 항상 일관성 있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그 처리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져 환경에 대한 우리의 통제와 효율성을 증진시켜 준다. 또한 자동적 처리의 성립은 매우 적은 반복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Smith와 Lerner(1986)는 사회적 판단의 자동처리는 적게는 16번의 일관적이고 반복적인 시행으로 이루어져질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처음에 제기한 신입교사의 예에서 본다면 그가 부임한지 약 한 달 정도가 지나면 학생들의 행동에 대한 처리들이 자동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자동화는 실무물적이 아니라 연속선의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Fazio 등(1995)의 실험에서 태도의 자동처리 정도에 따라 태도의 강도를 측정하는 것도 자동처리가 실무물적인 처리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는 원칙에서 출발하였다.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사회심리학에서 많은

자동적 처리에 대한 증거들은 점화의 패러다임에 의존한다(Logan, 1989). 다시 말하면, 시간적으로 선행된 관련 없는 자극이 관련 있는 표적자극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태도, 고정관념, 정서의 자동 활성화 실험에서 과제판단에 관련이 없는 점화자극이 표적자극의 판단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활성화를 측정하였거나, 사회적 지각과제에서는 표적자극의 판단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판단과제와 관련 없는 점화자극이 의식차원에서 관련 없는 것으로 남아있어야만 하며, 점화자극과 표적자극과의 관련성이 일단 의식되면 의식적 처리가 개입된다는 점이다. 이는 앞에서도 소개된 사회적 지각에서 점화사건을 의식하였을 때 나타나는 대비효과나 유연 수정모형에서 발견되었으며(Martin, 1986; Petty & Wegener, 1993; Higgins, 1996), 태도와 정서의 자동활성화 연구에서도 SOA가 의식적 처리가 개입될 수 있을 정도로 길 경우(예컨대 1,000msec)에는 의식적 추론과정이 개입되어 자동활성화의 영향이 사라지는 결과가 나타났다(Fazio et al., 1986; Murphy & Zajonc, 1993, 1995).

논문의 앞부분에서 저자들은 사회정보의 초기단계는 자동적 처리의 지배를 받으며, 상대적으로 후기 단계에 들어서서 의식적 처리가 개입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 사회적 정보를 처리할 때 자동처리와 의식적 처리는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일찍이 인지심리학에서 Shallice(1972)와 Posner와 Snyder(1975)는 의식적 처리가 일단 개입되면, 자동처리를 압도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원칙은 사회심리학 분야의 연구 결과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Bargh(1989)에 의하면 의식적 처리가 자동적 처리를 압도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자동적으로 받은 인지적 영향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의도와 동기가 있어야 한다. Wegener와 Petty(1993, 1995)는 이를 자신의 판단이 왜곡되는 것을 벗어나려는 욕구로 설명하였다. 동기적 요소가 자동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는 앞에서 소개한 Martin 등(1990)과 Ford

와 Kruglanski(1995)에서 뿐만 아니라 Thompson 등 (1994)에 의한 범주의 자동활성화에 관한 연구에서 나타난다. 이들은 특정 범주를 활성화한 후 참가자들의 정확성 동기를 조작하였을 때, 정확성 동기가 높은 참가자들은 정확성 동기가 낮은 집단에 비하여 현저하게 점화된 범주의 사용이 떨어짐을 발견했다. 둘째로 이러한 생각과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인지적 용량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Gilbert (1989)의 2단계 귀인 실험의 예를 들 수 있다. 즉 인지적으로 분주해진 참가자는 의식적 처리가 요구되는 상황귀인이 일어나지 않고 자동적인 성향 귀인만이 진행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또한 Martin 등(1990)은 특질범주를 자동적으로 활성화시킨 후 인상판단 과제를 할 때 다른 인지적 용량이 소요되는 과제를 동시에 병행시켰더니, 점화사건이 의식된 조건에서 의식적 처리에 의한 수정과정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의식적인 처리가 자동적 처리를 장악하기 위한 마지막 조건은 자신이 자동적인 처리과정에 의해서 영향받았거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여야만 한다. 개인이 자동처리로 인해 영향받았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그 효과는 의식적으로 통제될 수 없기 때문이다.

Gilbert(1989)는 자동처리와 의식처리의 관계를 기성복 공장의 단순 노무자와 품질 감독관으로 비유한다. 즉 단순 노무자(자동처리)가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작업을 마치면, 감독관(의식)은 작업라인 밖에서 노무자들의 일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한다. 만약 불량품이나 규정된 원칙 이외의 사건이 발생하면 그는 즉시 개입한다. 즉 두 단계의 처리가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는 앞에서 예를 든 대부분의 연구에서 적용된다. 사회판단에서 Petty와 Wegener(1993)의 유연 수정모형, 귀인에서 Gilbert (1988)등의 2단계 귀인과정, 고정관념에서 Devine(1989)의 이론, Schwarz와 Clore(1983)의 과수정(overcorrection) 모형, 사고통제에서 Wegner(1994)의 아이로닉 처리 등이 그러하다. 자동화된 처리과정이 먼저 지루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해주고, 그 후에 의식적 처리가 이를 확인하고 통제해 주는 공정이 아마도 마음의 공장에서 효율성과 정

확성을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지도 모른다.

자동처리 과정에서 밝혀진 증거들을 통해서 본다면 전통적인 사회심리학의 이론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절름발이 이론들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첫째로 사회적 사고나 행동의 중재자로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인지과정만을 고려하였으므로 처리 용량이 풍부하고, 의식적이며 의도적인 면을 강조하는 상황에 놓였거나 그런 성격을 지닌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자동적 처리에 대한 고려가 없었으므로 주의 용량이 부족한 상황에 놓인 개인들에게는 예언력을 지니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이론들이다. 예컨대 태도-행위의 일관성을 설명하려고 제시된 이성적 행위 모형(Ajzen & Fishbein, 1980)의 경우 인지적으로 분주한 상황에 놓인 개인이나, 상황적 자극이 강하게 행동반응을 자동 활성화할 경우에는 충분한 예언력을 지니지 못한다. 둘째로 전통적인 사회심리학의 이론들은 사회적 정보처리의 초기단계에 대하여는 침묵하거나, 당연한 전제로 받아들이고 출발하였다. 그러나, 앞서 소개한 다양한 연구들의 예에서 자극이 주어진 후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반응과 약화화 과정이 차후의 정보처리 방향을 결정하며, 결국 다음에 일어나는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 밝혀졌다. 귀인이론의 예를 들자면 전통적인 사회심리학자들은 타인의 공격적인 행동을 어떻게 추론하는가에 관심을 가졌지 특정 행동을 공격적이라고 명명화 혹은 범주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Trope, 1986). 그러나 사회적 지각의 자동적 처리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공격적 행동이라고 범주화하는 과정까지는 다양한 자동적 처리과정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Higgins, 1996). 만약 특정 행동이 공격적 행동이라고 범주화되지 않을 수 있다면, 그 다음의 처리에 관한 설명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태도 연구에서 태도-행동의 일관성이 부족한 것이 대상을 대하는 즉시 일어나는 자동활성화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점도 이와 맥을 함께 한다(Fazio, 1986; Greenwald et al., in press). 즉 전통적인 사회심리학의 이론들이 사회적 정보의 초기 단계인 자동적 처리과정에 대해 침묵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는 설명력과

에언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사회심리학의 자동처리에 관한 연구들이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는 어떤 중요성을 시사하는가? 어떤 사람은 사회적 정보 처리에서 더 많은 자동처리의 영향을 발견해내는 것이 인간을 자유의지가 결핍된 운명론적인 모습으로 만들어 가며, 우리의 삶에서 의식적 통제감을 상실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자동처리의 연구들은 Skinner(1971)의 환경적 결정론(environmental determinism)과 같이 주어진 환경이 우리의 심리적 삶에 직접적이며, 피할 수 없는 통제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지식에 관해서는 무식이 약이 될 수는 없다. 우리가 우리의 사고, 정서, 행동에 관여하는 자동처리 과정에 대하여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이들을 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다(Bargh, 1996).

참 고 문 헌

권준모(1997). 사회적 접화에서 동화와 대비효과. *경희대학교 교육문제 연구소 논문집*, 13, 33-45.

나은영(1997). 역고정관념의 암묵적 활성화와 인상형성: 남녀 고정관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11(2), 129-145.

나은영(1998). 강한 태도의 편파적 처리과정을 포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이중처리과정 이론의 확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12(1), 37-70.

오세철·윤덕현(1982). 휘시베인의 행동예측모형에 관한 연구. 오세철(저), *한국인의 사회심리*. pp.91-105. 서울: 박영사.

이수원(1995). 양극구조에서 이원구조로: 개인내 태도구조의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4(1), 1-32.

이수정·권준모·이훈구(1998). 정서의 자동처리기제. *인지과학지*, 9(1).

한규석(1995).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Ajzen, I., & Fishbein, M.(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Englewood

Cliff, NJ: Prentice-Hall.

Allport, G. W.(1935). Attitudes. In C. Murchison (Ed.), *A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pp.798-844). Worcester, MA: Clark University Press.

Anderson, J. R.(1976). *Language, memory, and thought*.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nderson, J. R.(1983). *The architecture of cogni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Anderson, J. R., & Bower, G. H.(1973). *Human associative memory*. Washington, D.C.: Winston and Sons.

Ansfield, M., & Wegner, D. M.(1996). The feeling of doing. In P. M. Gollwitzer & J. A. Bargh (Eds.), *The psychology of action*(pp.482-506). New York: Guilfor Press.

Arnold, M. B.(1960). *Emotion & Personality* (2 Vol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Bargh, J. A.(1984). Automatic and conscious processing of social information. In R. S. Wyer, Jr. & T. K. Srull (Eds.), *Handbook of social cognition* (Vol. 3). Hillsdale, NJ: Erlbaum.

Bargh, J. A.(1989). Conditional automaticity: Varieties of automatic influence in social perception and cognition. In J. S. Uleman & J. A. Bargh (Eds.), *Unintended thought: The limits of awareness, intention and control* (pp.3-51). New York: Guilford.

Bargh, J. A.(1992). Being unaware of the stimulus versus unaware of its interpretation: Does subliminality per se matter to social psychology? In R. Bornstein & T. Pittman (Eds.), *Perception without awareness*. New York: Guilford.

Bargh, J. A.(1994). The four horseman of automaticity: Awareness, intention, efficiency, and control in social cognition. In R. S. Wyer & Jr., & T. K. Srull (Eds.), *Handbook of social cognition* (2nd ed.), Hillsdale, NJ: Erlbaum.

Bargh, J. A.(1996). Automaticity in social psychology,

- In E. T. Higgins & A. W. Kruglanski(Eds.), *Social psychology: Handbook of basic principles* (pp.169-183). New York: Guilford Press.
- Bargh, J. A., Bond, R. N., Lombardi, W. J., & Tota, M. E.(1986). The additive nature of chronic and temporary sources of construct accessi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869-878.
- Bargh, J. A., Chaiken, S., Govender, R., & Pratto, F. (1992). The generality of the automatic activation e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181-198.
- Bargh, J. A., Chen, M., & Burrows, L.(1996). Automaticity of social behavior: Direct effects of trait construct and stereotype activation on 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230-244.
- Bargh, J. A., Gollwitzer, P. M., & Barndollar, K.(1996). *Social ignition: On the automatic activation of motivational states*.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New York University.
- Bargh, J. A., Litt, J. E., Pratto, F., & Spielman, L. A.(1988). On the preconscious evaluation of social stimuli. In K. McConkey & A. Bennet (eds.), *Proceedings of the XXIV International Congress of Psychology* (Vol. 3, pp.1-57). Amsterdam: Elsevier/North-Holland.
- Bargh, J. A. & Pietromonaco, P.(1982). Automatic information processing and social perception: The influence of trait information presented outside of conscious awareness on impression 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437-449.
- Bartlett, F. C.(1932). *Remembering*.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chara, A. D., Tranel, H., Damasio, R., Adolphs, C., Rockland, & Damasio, A. R.(1995). Double dissociation of conditioning and declarative knowledge relative to the amygdala and hippocampus in humans. *Science*, 269, 1115-1118.
- Bem, D. J.(1972). Self-perception theory.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6, pp.1-62). New York: Academic Press.
- Berkowitz, L.(1984). Some effects of thoughts on anti- and prosocial influences of media events: A cognitive-neoassociation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95, 410-427.
- Blair, I. V. & Banaji, M. R.(1996). Automatic and controlled processes in stereotype prim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142-1163.
- Blaney, P.(1986). Affect and memory: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99, 229-246.
- Bower, G. H.(1981). Mood and memory. *American Psychologist*, 36, 129-148.
- Bower, G. H.(1991). Mood congruity of social judgments. In J. P. Forgas (ed.), *Emotion and social judgements*. Oxford: Pergamon Press.
- Bower, G. H., & Cohen, P. R.(1982). Emotional influences in memory and thinking: Data and theory. In M. S. Clark & S. T. Fiske (eds.), *Affect and cognition* (pp.291-331). Hillsdale, NJ: Erlbaum.
- Bruner, J. S.(1957a). Going beyond the information given. In H. Gruber et al. (Eds.), *Perception: An approach to personality*. New York: Roland Press.
- Bruner, J. S.(1957b). On perceptual readiness. *Psychological Review*, 64, 123-152.
- Cacioppo, J. T., & Sandman, C. A.(1981). Psychophysiological functioning, cognitive responding and attitudes. In R. E. Petty, T. M. Ostrom, & T. C. Brock (Eds.), *Cognitive responses to persuasion*. Hillsdale, NJ: Erlbaum.
- Carver, C. S., Ganellen, R. J., Froming, W. J., &

- Chambers, W.(1983). Modeling: an analysis in terms of category accessibil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9, 403-421.
- Chapman, L. J., & Chapman, J. P.(1957). Genesis of popular but erroneous diagnostic observ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72, 193-204.
- Clark, M. S., & Isen, A. M.(1982). Toward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eeling states and social behavior. In M. S. Clark & S. T. Fiske (eds.), *Affect and cognition* (pp.73-108). Hillsdale, NJ: Erlbaum.
- Collins, A. M. & Loftus, E. F.(1975). A spreading-activation theory of semantic processing, *Psychological Review*, 82, 407-428.
- Collins, L. J., & Quillian, M. R.(1969). Retrieval time from semantic memory.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8, 240-247.
- Converse, P. E.(1970). Attitudes and non-attitudes: Continuation of a dialogue. In E. R. Tuft (Ed.),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social problems* (pp.168-189). Reading, MA: Addison-Wesley.
- Davidson, R. J., & Cacioppo, J. T.(1992). New developments in the scientific study of emotion: An introduction to the special section. *Psychological Science*, 3, 21-22.
- Devine, P. G.(1989). Stereotypes and prejudice: Their automatic and controlled compon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5-18.
- Dovidio, J. F., & Gaertner, S. L.(1991). Changes in the nature and expression of racial prejudice. In H. Knopke, J. Norrell, & R. Rogers (Eds.), *Opening doors: An appraisal of race relations in contemporary America* (pp.201-241). Tuscaloosa, AL: Univ. of Alabama Press.
- Dovidio, J. F., & Gaertner, S. L.(1997). On the nature of contemporary prejudice: The causes, consequences, and challenges of aversive racism. In J. Eberhardt & S. T. Fiske (Eds.), *Racism: The problem and the response*. Newbury Park, CA: Sage.
- Dovidio, J. F., Kawakami, K., Johnson, C., Johnson, B., & Howard, A.(1997). On the nature of prejudice: automatic and controlled process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3, 510-540.
- Edwards, W.(1954). The theory of decision-making. *Psychological Bulletin*, 51, 380-417.
- Erber, R.(1991). Affective and semantic priming: Effects of mood on category accessibility and inferenc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7, 480-498.
- Erdley, C. A., & D'Agostino, R. R.(1988). Cognitive and affective components of automatic priming affe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741-747.
- Fazio, R. H.(1986). How do attitudes guide behavior? In R. M. Sorrentino & E. Higgins (Eds.), *The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pp.204-243). New York: Guilford Press.
- Fazio, R. H.(1990). Multiple processes by which attitudes guide behavior. The MODE model as an integrative framework.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3, pp.75-109). New York: Academic Press.
- Fazio, R. H., Chen, J., McDonel, E. C., & Sherman, S. J.(1982). Attitude accessibility, attitude-behavior consistency, and the strength of the object-evaluation associ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8, 339-357.
- Fazio, R. H., Jackson, J. R., Dunton, B. C., & Williams, C. J.(1995). Variability in automatic activation as an unobtrusive measure of racial attitudes: A Bona Fide Pipelin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1013-1027.
- Fazio, R. H., Jackson, J. R., Dunton, B. C., &

- Williams, C. J.(1995). Variability in automatic activation as an unobtrusive measure of racial attitudes: A bona fide pipelin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1013-1027.
- Fazio, R. H., Powell, M. C., & Herr, P. M.(1983). Toward a process model of attitude-behavior relation: Accessing one's attitude upon mere observation of the attitude obj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723-735.
- Fazio, R. H., Sanbonmatsu, D. M., Powell, M. C., & Kardes, F. R.(1986). On the automatic activation of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229-238.
- Fazio, R. H., Sanbonmatsu, D. M., Powell, M. C., & Kardes, F. R.(1986). On the automatic activation of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229-238.
- Fazio, R. H., & Zanna, M. P.(1981). Direct experience and attitude-behavior consistency. In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4, pp.161-202). New York: Academic Press.
- Festinger, L.(1957). *A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Evanston, IL: Row, Peterson.
- Fiske, S. T. (1989). Examining the role of intent: Toward understanding its role in stereotyping and prejudice. In J. S. Uleman & J. A. Bargh (Eds.), *Unintended thought*. New York: Guilford.
- Ford, T. E., & Kruglanski, A. W.(1994). Effects of epistemic motivations on the use of accessible constructs in social judgmen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 950-962.
- Gaertner, S. L., & McLaughlin, J. P.(1983). Racial stereotypes: Associations and ascriptions of positive and negative characteristic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6, 23-30.
- Gilbert, D. T.(1989). Thinking lightly about others: Automatic components of the social inference process. In J. S. Uleman & J. A. Bargh (Eds.), *Unintended thought: The limits of awareness, intention and control* (pp.189-211). New York: Guilford.
- Gilbert, D. T., Pelham, B. W., & Krull, D. S.(1988). On cognitive busyness: When person perceivers meet persons perceiv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733-740.
- Gollwitzer, P. M.(1990). Action phases and mind-sets. In E. T. Higgins & R. M. Sorrentino (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Vol. 2, pp.53-92). New York: Guilford.
- Gordon, P. C., & Holyoak, K. J.(1983). Implicit learning and generalization of the "mere exposure" e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492-500.
- Greenwald, A. G., & Banaji, M. R.(1995). Implicit social cognition: attitudes, self-esteem, and stereotypes. *Psychological Review*, 102, 4-27.
- Greenwald, A. G., McGhee, D. E., & Schwartz, L. K. (in press).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implicit cognition: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 Hansen, C. H., & Hansen, R. D.(1988). Finding the face in the crowd: An anger superiority e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917-924.
- Hansen, C. H., & Hansen, R. D.(1989). Automatic emotion: attention and facial expression In P. M. Niedenthal & S. Kitayama (eds.), *The Heart's Eye: Emotional Influences in Perception and Attention* (pp.88-113). New York: Academic Press.
- Heider, F.(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Wiley.
- Helmholtz, H. von.(1925). *Treatise on psychological optics*. Menasha, WI: Banta.
- Herr, P. M., Sherman, S. J., & Fazio, R. H.(1983).

- On the consequences for priming: Assimilation and contrast effect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9, 323-340.
- Higgins, E. T.(1989). Knowledge accessibility and activation: Subjectivity and suffering from unconscious sources. In J. S. Uleman & J. A. Bargh (Eds.), *Unintended thought: The limits of awareness, intention and control* (pp.75-123). New York: Guilford.
- Higgins, E. T.(1996). Knowledge activation: Accessibility, applicability, and salience. In E. T. Higgins & A. W. Kruglanski (Eds.), *Social psychology: Handbook of basic principles* (pp.133-168). New York: Guilford Press.
- Higgins, E. T., & Bargh, J. A.(1987). Social cognition and social percept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8, 369-425.
- Higgins, E. T., Bargh, J. A., & Lombardi, W.(1985). The nature of priming effects on categoriz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11, 59-69.
- Higgins, E. T., & Chaires, W. M.(1980). Accessibility of interrelational constructs: Implications for stimulus encoding and creativ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1, 218-243.
- Higgins, E. T., & King, G.(1981). Accessibility of social constructs: Information processing consequences of individual and contextual variability. In N. Cantro & J. Kihlstrom (Eds.) *Personality, cognition, and social interaction* (pp.69-121). Hillsdale, NJ: Erlbaum.
- Higgins, E. T., King, G. A., & Jones, C. R.(1977). Individual construct accessibility and subjective impressions and recal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35-47.
- Higgins, E. T., Rholes, W. S., & Jones, C. R.(1977). Category accessibility and impression form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3, 141-154.
- Hovland, C. I.(1959). Reconciling conflicting results derived from experimental and survey studies of attitude change. *American Psychologist*, 14, 8-17.
- Hovland, C. I., Harvey, O. J., & Sherif, M.(1957). Assimilation and contrast effects in reactions to communication and attitude chang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5, 244-252.
- Isen, A. M.(1984). Toward understanding the role of affect in cognition. In R. S. Wyer & T. K. Srull (eds.), *Handbook of social cognition* (Vol. 3). Hillsdale, NJ: Erlbaum.
- Isen, A. M.(1987). Positive affect, cognitive processes, and social behavior. In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0, pp.203-253).
- Izard, C. E.(1992). Basic emotions, relations among emotions, and emotion-cognition relations. *Psychological Review*, 99, 561-565.
- Jacoby, L. L., Kelley, C., Brown, J., & Jasechko, J. (1989). Becoming famous overnight: Limits on the ability to avoid unconscious influences of the pa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326-338.
- James, K.(1986). Priming and social categorizational factors: Impact on awareness of emergency situa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2, 462-467.
- James, W.(1890). *Principles of psychology*. New York: Holt.
- James, W.(1950).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Vol. 2) New York: Dover Publication. (Original work published in 1890).
- Johnson, M. K., & Hasher, L.(1987). Human learning and memor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8, 631-668.
- Jones, E. E., Davis, K. E.(1965). From acts to dispo-

- sitions: The attribution process in person perception.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 pp.219-266). New York: Academic Press.
- Kahneman, D., & Treisman, A. M.(1984). Changing views of attention and automaticity. In R. Parasuraman & R. Davies (Eds.), *Varieties of attention* (pp.29-61). New York: Academic Press.
- Katz, D., & Brady, K.(1933). Racial stereotypes in one hundred college stud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8, 280-290.
- Kelley, H. H.(1967). Attribution theory in social psychology. In D. Levine (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Vol. 15, pp.192-238).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Kihlstrom, J. F., Barnhardt, T. M., & Tataryn, D. J. (1992). Implicit perception. In R. F. Bornstein & T. S. Pittman (Eds.), *Perception without awareness*(pp.17-54). New York: Guilford Press.
- Kitayama, S.(1990). Interaction between affect and cognition in word percep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209-217.
- Kitayama, S. & Howard, S.(1994). Affective regulation of perception and comprehension: Amplification and semantic priming. In P. M. Niedenthal & S. Kitayama (eds.), *The Heart's Eye: Emotional Influences in Perception and Attention* (pp.41-65). New York: Academic Press.
- Koffka, K.(1935). *Principles of Gestalt psychology*. New York: Har-court, Brace.
- LaPiere, R. T.(1934). Attitudes vs. actions. *Social Forces*, 13, 230-237.
- Lachman, R., Lachman, J. L., & Butterfield, W. C. (1979). *Cognitive psychology and information processing: An introduction*. Hillsdale, NJ: Erlbaum.
- Langer, E. J.(1978). Rethinking the role of thought in social interaction. In J. H. Harvey, W. J. Ickes, & R. F. Kidd (Eds.), *New directions in attribution research* (Vol. 2, pp.35-58). Hillsdale, NJ: Erlbaum.
- Lazarus, R. S.(1968). Emotions and adaptation: Conceptual and empirical relations. In W. J. Arnold (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pp. 175-266).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Lazarus, R. S.(1984). On the primacy of cognition. *American Psychologist*, 39, 124-129.
- Ledoux, J. E.(1989). Cognitive-emotional interactions in the brain. *Cognition and Emotion*, 3, 267-289.
- Lepore, L., & Brown, R.(1997). Category and stereotype activation: is prejudice inevitab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275-287.
- Lewin, K.(1935). *A dynamic theory of personality*. New York: McGraw-Hill.
- Logan, G. D.(1988). Toward an instance theory of automatization. *Psychological Review*, 95, 492-527.
- Logan, G. D., & Cowan, W. B.(1984). On the ability to inhibit thought and action: A theory of an act of control. *Psychological Review*, 91, 295-327.
- Marcel, A. J.(1983a). Conscious and unconscious perception: Experiments in visual masking and word recognition. *Cognitive Psychology*, 15, 197-237.
- Marcel, A. J.(1983b). Conscious and unconscious perception: An approach to the relation between phenomenal experience and perceptual peocesses. *Cognitive Psychology*, 15, 238-300.
- Martin, L. L.(1986). Set/reset: Use and disuse of concepts in impression 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493-504.
- Martin, L. L., Seta, J. J., & Crelia, R. A.(1990). Assimilationand contrast as a fuction of people's

- willingness and ability to expend effort in forming an im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27-37.
- Meyer, D. E. & Schvaneveldt, R. W.(1971). Facilitation in recognizing pairs of words: Evidence of a dependence between retrieval operation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90, 227-234.
- Mischel, W.(1973). Toward a cognitive social learning reconceptualization of personality. *Psychological Review*, 80, 252-283.
- Murphy, S. T., & Zajonc, R. B.(1993). Affect, cognition, and awareness: Affective priming with suboptimal and optimal stimul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723-739.
- Murphy, S. T., & Zajonc, R. B.(1995). Additivity of nonconscious affect: combined effects of priming and expo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589-602.
- Neely, J. H.(1977). Semantic priming and retrieval from lexical memory: Roles of inhibitionless spreading activation and limited-capacity attent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06, 225-254.
- Newman, L. S., & Uleman, J. S.(1990). Assimilation and contrast effects in spontaneous trait infere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6, 224-240.
- Niedenthal, P. M.(1990). Implicit perception of affective inform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6, 505-527.
- Niedenthal, P. M., Setterlund, M. B., & Jones, D. E. (1994). Emotional organization of perceptual memory. In P. M. Niedenthal & S. Kitayama (eds.), *The Heart's Eye: Emotional Influences in Perception and Attention* (pp.88-113). New York: Academic Press.
- Norman, R.(1975). Affective-cognitive consistency, attitudes, conformity, and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83-91.
- Osgood, C. E.(1953). *Method and theory in experimental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Osgood, C. E., Suci, G. J., & Tannenbaum, P. H. (1957). *The measurement of meaning*.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Petty, R. E., & Cacioppo, J. T.(1981). *Attitudes and persuasion: Classic and contemporary approaches*. Dubuque, LA: Wm. C. Brown.
- Petty, R. E., & Cacioppo, J. T.(1986). *Communication and persuasion: Central and peripheral routes to attitude change*. New York: Springer-Verlag.
- Petty, R. E., & Wegener, D. T.(1993). Flexible correction processes in social judgment: Correction for context-induced contras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9, 137-165.
- Piaget, J.(1946). *Symbolic formation of the child*. Paris: Delachaux & Niestle.
- Plutchik, R.(1980). *Emotion: A psychoevolutionary synthesis*. New York: Harper & Row.
- Roseman, I.(1984). Cognitive determinants of emotions: A structural theory. In P. Shaver (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 Emotions, relationships, and health* (pp.11-36). Beverly Hills: Sage.
- Posner, M. I., & Snyder, C. R. R.(1975). Attention and cognitive control. In R. L. Solso (Ed.), *Information processing and cognition: The Loyola symposium*. Hillsdale, NJ: Erlbaum.
- Powell, M. C., & Fazio, R. H.(1984). Attitude accessibility as a function of repeated attitudinal expres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0, 139-148.
- Pratto, F.(1994). Consciousness and automatic evaluation. In P. M. Niedenthal & S. Kitayama (eds.), *The Heart's Eye: Emotional Influences in Perception and Attention* (pp.116-143). New York:

Academic Press.

- Prinz, W.(1990). A common coding approach to perception and action. In O. Newmann & W. Prinz (Eds.), *Relationships between perception and action* (pp.167-201). Berlin: Springer-Verlag.
- Quattrone, G. A.(1982). Overattribution and unit formation: when behavior engulfs the pers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 593-607.
- Reeder, G. D., & Brewer, M. B.(1979). A schematic model of dispositional attribution in interpersonal perception. *Psychological Review*, 86, 61-79.
- Rholes, W. S., & Pryor, J. B.(1982). Cognitive accessibility and causal attribu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8, 719-727.
- Roskos-Ewoldsen, D. R., & Fazio, R. H.(1992). On the orienting value of attitudes: Attitude accessibility as a determinant of an objects's attraction of visual atten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198-211.
- Sagar, H. A., & Schofield, J. W.(1980). Racial and behavioral cues in black and white children's perceptions of ambiguously aggressive a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590-598.
- Sample, J., & Warland, R.(1973). Attitude and prediction of behavior. *Social Forces*, 51, 292-304.
- Schank, R. C., & Abelson, R. P.(1977). *Scripts, plans, goals and understanding*. Hillsdale, NJ: Erlbaum.
- Scherer, K. R.(1982). Emotion as process: Function, origin, and regulation. *Social Science Information*, 21, 555-570.
- Schuman, H., & Johnson, M. P.(1976). Attitudes and behavior. *Annual Review of Sociology*, 2, 161-207.
- Schwarz, N., & Clore, G. L.(1983). Mood, misattribution, and judgements of well-being: Informative and directive functions of affective st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513-523.
- Sedikides, C.(1990). Effects of fortuitously activated communication goals on person impress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397-408.
- Shallice, T.(1972). Dual functions of consciousness. *Psychological Review*, 79, 383-393.
- Sherif, C. W., Kelley, M., Rodgers, H. L., Sarup, G., & Tittler, B. I.(1973). Personal involvement, social judgment, and 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7, 311-328.
- Sherif, M., & Cantril, H.(1947). *The psychology of ego-involvements*. New York: Wiley.
- Sherman, S. J., Mackie, D. M., & Driscoll, D. M. (1990). Priming and the differential use of dimensions in evalu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6, 405-418.
- Shiffrin, R. M., & Schneider, W.(1977). Controlled and automatic human information processing: II. Perceptual learning, automatic attending, and a general theory. *Psychological Review*, 84, 127-190.
- Skinner, B. F.(1971). *Beyond freedom and dignity*. New York: Knopf.
- Skrowski, J. J., Carlston, D. E., & Isham, J. T. (1993). Implicit versus explicit impression formation: The differing effects of overt labeling and covert priming on memory and impression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9, 17-41.
- Smith, E. R.(1984). Model of social inference processes. *Psychological Review*, 91, 392-413.
- Smith, E. R., Fazio, R. H., & Cejka, M. A.(1996). Accessible attitudes influence categorization of multiply categorizable obje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888-898.
- Smith, E. R., & Learner, M.(1986). Development of

- automatism of social judg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246-259.
- Sorrentino, R. M., & Higgins, E. T.(1986). Motivation and cognition: Warming up to synergism. In R. M. Sorrentino & E. Higgins (Eds.), *The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pp.3-19). New York: Guilford Press.
- Srull, T. K., & Wyer, R. S., Jr.(1979). The role of category accessibility in the interpretation of information about persons: Some determinants and implic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660-1672.
- Strack, F., Martin, L. L., & Stepper, S.(1988). Inhibiting and facilitating conditions of the human smile: unobtrusive test of the facial feedback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768-777.
- Srull, T. K., & Wyer, R. S.(1979). The role of category accessibility in the interpretation of information about persons: Some determinants and implic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660-1672.
- Taylor, S. E.(1981). The interface of cognitive and social psychology. In J. Harvey (Ed.), *Cognition, social behavior, and the environment* (pp.189-211). Hillsdale, NJ: Erlbaum.
- Thompson, E. P., Roman, R. J., Moskowitz, G. B., Chaiken, S., & Bargh, J. A.(1994). Accuracy motivation attenuates covert priming: The systematic reprocessing of social in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474-489.
- Trope, Y.(1986). Identification and inferential processes in dispositional attribution. *Psychological Review*, 93, 239-257.
- Trzebinski, J., & Richards, K.(1986). The role of goal categories in person impress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22, 216-227.
- Tversky, A., & Kahneman, D.(1974). Judgment under uncertainty: Heuristics and biases. *Science*, 185, 1124-1131.
- Uleman, J. S., Newman, L. S., & Winter, L.(1992). Can personality traits be inferred automatically? Spontaneous inferences require cognitive capacity at encoding. *Consciousness and Cognition*, 1, 77-90.
- Wegener, D. T., & Petty, R. E.(1995). Flexible correction processes in social judgement: The role of naive theories in corrections for perceived bia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36-51.
- Wegener, D. T., & Petty, R. E.(1997). The flexible correction model: the role of naive theories of bias in bias correctio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9, 141-208.
- Wegner, D. M.(1994). Ironic process of mental control. *Psychological Review*, 101, 34-52.
- Wicker, A. W.(1971). An examination of the "other variable" explanation of attitude-behavior inconsist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 18-30.
- Williams, C. W.(1993). The effect of priming causal dimensional categories on social judgments. *Social Cognition*, 11, 223-242.
- Winter, L., & Uleman, J. S.(1984). When are social judgments made? Evidence for the spontaneity of trait infer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237-252.
- Wittenbrink, B., Judd, C. M., & Park, B.(1997). Evidence for racial prejudice at the implicit level and its relationship with questionnaire meas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2), 262-274.
- Wyer, R. S., Jr., & Hartwick, J.(1980). The role of information retrieval and conditional inference processes in brief formation and change. In

- Berkowitz (Ed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3 (pp.241-284). New York: Academic Press.
- Zajonc, R. B.(1980). Feeling and thinking: Preferences need no inferences. *American Psychologist*, 35, 151-175.
- Zajonc, R. B.(1984). On primacy of affect. In K. R. Scherer & P. Ekman (eds.), *Approaches to emotion* (pp.259-270).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Zbrodoff, N. J., & Logan, G. D.(1986). On the autonomy of mental processes: A case study of arithmetic.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15, 118-130.

New Path to Social Psychology: Automatic Processing of Social Information

Joon-Mo Kwon, *Hoon-Koo Lee and *Soo-Jung Lee

Kyunghee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e psychologists studying learning, memory, and decision making have regarded human beings as organisms having rational, intentional, and conscious control over their thoughts and decisions. Until 1970s, social psychologists also, following the position of rationalism, have believed that people, as rationalistic and naive scientists (Heider, 1958), make a conscious judgement of their environment according to a series of rules and regulations. However, recent empirical studies found lots of psychological phenomena, occurred without any conscious awareness and intention, inexplicable by the rationalistic model over thoughts and behaviors of human beings. Furthermore, some researches present a large amount of prejudice and stereotype is implicitly applied and hard to be controlled. This literature review explained how thoughts, attitudes, and behaviors are able to be automatically activated without intentions or even without conscious awareness. Also, it is discussed how emotions and cognitive inferences are made without conscious processes.